



세계가 하나로!
평창, 17일 간의 열전



행동하는 평화

올겨울은 너무 춥습니다. 그러나 눈 쌓인 강원도 산들은 아름답습니다. 진정으로 아름다운 산은 겨울에 아름답다고 합니다. 사람도 진정 아름다운 사람은 자기의 겨울을 지날 때 아름답습니다.

설이 다가왔습니다. 덕담을 주고받는 것은 새해 인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서로의 복을 빌고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풍습은 우리의 오래된 전통이라고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덕담을 하면 내 안에 덕이 고입니다. 악담을 하면 그 악한 기운이 내 안에 쌓입니다. 악한 기운은 나중에 병이 됩니다. 남에게 좋고 내게도 덕이 되는 좋은 덕담을 많이 주고받는 설 명절이 되길 바랍니다.

설 명절에도 평창 올림픽은 뜨겁게 진행됩니다. 저는 평창이 평화의 ‘평’, 변창의 ‘창’이 되리라 믿습니다. 평화가 찾아오고 변영으로 가는 올림픽이 되길 바랍니다. 북한이 참가하게 되면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안심하고 선수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안전한 올림픽으로 치르게 되었습니다. 올림픽 개최식이 진행되는 동안 전 세계 수십억 인구가 화려하고 격조 높은 우리 문화를 생방송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북한만이 아니라 92개 나라와 올림픽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인입니다. 우리가 주최국입니다. 자신감을 갖고 북한을 초청했고 예술단 공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군사적 대결과 평화적 시기가 교차하는 굴곡진 역사를 살아 왔습니다. 올림픽을 치른다고 북핵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누구나 압니다. 그러나 남북문제도 군사적 해결방식이 아니라 대화로 풀어야 합니다. 공멸의 방식이 아니라 공존의 방식 중에 선택해야 합니다. 평화는 올림픽이 실현하고자 하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전 세계가 평화올림픽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는 행동하는 평화이어야 합니다. 함께 만드는 평화이어야 합니다. 평창 올림픽의 레거시는 평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흘린 땀을 기억합니다. 메달을 따는 선수들이 흘린 땀을 향해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들이 흘린 눈물을 향해서도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이 열리는 이 추운 강원도의 겨울을 따뜻한 겨울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평창 감동 속으로 평화 올림 속으로

이근하 | 위클리 공감 기자





1



2

- 1 남북 선수단 공동기수인 남측 원윤종, 북측 황충금이 한반도기를 앞세워 개회식에 동시 입장하고 있다.
- 2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이 열린 강원도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 상공에 화려한 불꽃이 터지고 있다.
- 3 백호와 아이들이 한국 탐험을 테마로 한 개회식 무대를 펼치고 있다. | 연합뉴스



3





4

- 1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남북 선수단을 향해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있다. 그 뒤로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1부 부장이 손을 흔들며 환영하고 있다.
- 2 한반도기를 든 남북 선수단이 올림픽플라자에 입장하고 있다.
- 3 가수 하현우, 이은미, 전인권, 안지영이 존 레논의 '이미진'을 합창하고 있다.
- 4 남북 선수단 입장에 북한 응원단이 한반도기를 흔들며 환호를 보내고 있다.
- 5 통가 선수단이 독특한 복장을 하고 개회식에 입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



5



1



2



3



4

뉴스



5



6



7

1 미디어아트와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볼거리가 올림픽플라자에 펼쳐졌다.

2 남북단일하키팀 박종아, 정수현이 김연아에게 성화를 전달하고 있다.

3 무술인 복장을 한 안무팀이 성화 환영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4 북한 삼지연관현악단이 2월 8일 강릉 아트센터 사임당홀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기원 특별공연을 했다.

5 2월 9일 강릉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피겨 팀이벤트에서 김규은, 감강찬이 페어 연기를 하고 있다.

6 2월 8일 평창 알펜시아 스키점핑센터에서 열린 스키점프 남자 노멀힐 개인전에 출전한 최서우가 힘차게 날아오르고 있다.

7 이기정과 장혜지가 2월 9일 컬링 믹스더블 4차 예선 미국과의 경기에서 스위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Weekly

공감

올림픽·설 특별호

No.441

2018. 02. 12/19

- 01 권두칼럼
행동하는 평화
- 02 화보
평창 감동 속으로
평화 올림 속으로



12



26

하나된 열정
하나된 대한민국



세계가 하나로! 평창, 17일 간의 열전

- 12 GO! TEAM KOREA
태극전사 145명 종합 4위 '아름다운 도전'
- 18 해외 스타 & 이색 출전자
아이스하키 중주국 '캐나다 아성' 무너지나
피겨 김주식-럼대옥 북한 선수단 최고 경쟁력
- 22 올림픽 경기 따라잡기
알고 봐야 더 재미있다!
종목별 하이라이트 & 관전 포인트
- 26 자원봉사 & 응원 이벤트
"방식은 달라도 열정과 보람은 하나"

- 30 동계올림픽 역사
1924년 샤모니부터 2018년 평창까지
스물세 번 평화의 향연
- 32 평창동계올림픽 교통안내
- 34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캘린더
- 36 평창·강릉·정선...
먹고 보고 즐기자
- 41 살며 생각하며
설날 사용설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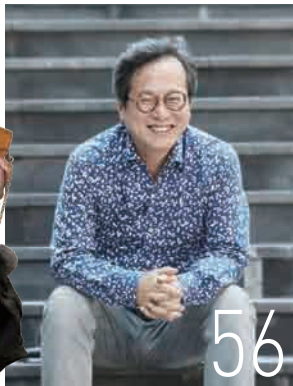
연합

내 삶을 바꾸는 정책

- 42 함께 살자는 정책, 최저임금 보장
일자리 안정자금, 비과세 혜택 늘려 사각지대 줄인다
- 46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삶
60세 이상 치매 의심환자 MRI 검사도 건강보험 혜택
- 48 바뀌는 금융제도 꿀팁
금리 부담 줄여주는 슬기로운 금융생활



52



56



66

- 50 정훈이 만화 | 이슈를 품은 역사 이야기
- 52 찾아가는 신문고
명절 앞둔 수원 영동시장
“기존·청년상인 다같이 신바람 나는 전통시장 꿈꿔요”
- 56 릴레이 인터뷰 | 내 생애 최고의 설
“잊지 못할 추억의 설날, 내겐 감동이었어~”
- 60 문화정보
설 명절 연휴 뭐하고 놀까
- 64 건강
살찌는 명절 털 찌는 운동법 5
- 66 박상건의 섬 이야기 ③
연어 떼처럼 고향을 찾는 사람들
- 68 이주현의 손 안의 예술사 ④
인간의 오감, 그 묘한 이중성
- 70 모두의 철학 ④
‘발상의 전환’을 생각한다
- 72 민원 서비스
비상시엔 병원·약국 129, 교통정보 1333



64



Coverstory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화 점화자는
2010 밴쿠버동계올림픽 금메달 리스트
김연아였다. 김연아는 피겨 변방이었던
우리나라를 세계 중심에 세웠을 뿐 아니라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우리나라 피겨 열풍에
불을 지핀 그가 성화대에 불꽃을 피웠다.
평창동계올림픽 17일 간의 대장정이
시작된 순간이다.

발행일 2018. 02. 12/19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도종환
제작기획 국민소통실 홍보콘텐츠과
044-203-3014
제작협력 (주)조선뉴스프레스
인쇄제본 팩컴코리아
구독문의 및 주소변경(수신자부담)
080-906-4480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행하는 <위클리 공감> 저작물은 '공공누리'(www.kogri.or.kr)의 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 하라 표시제도입니다.

- <위클리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세계가 하나로! 평창, 17일 간의 열전

장가현 | 위클리 공감 기자



1 12월 9일 강원도 평창 올림픽플라자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2 스피드스케이팅 모태범 선수를 비롯한 김우식 심판, 박기호 코칭스태프 대표가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

“제23회 동계올림픽대회인 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2월 9일 오후 8시 강원도 평창 올림픽플라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2월 25일까지 17일 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동·하계올림픽, 월드컵축구대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세계 4대 스포츠 이벤트를 모두 연 세계 5번째 나라가 됐다.

‘하나된 열정(Passion, Connected)’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치르는 평창올림픽에는 총 92개국에서 2920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남성이 1708명, 여성이 1212명이다. 참가 국가와 선수 수에서 모두 동계올림픽 사상 최대였던 2014년 러시아 소치 대회(88개국 2858명)를 넘어섰다.

우리나라도 15개 전 종목에 걸쳐 선수 145명과 임원 75명 등 총 22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선수단을 꾸렸다. 에콰도르를 비롯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에리트레아, 코소보, 나이지리아 등 6개국은 평창에서 첫 번째 동계올림픽을 치른다.

소치올림픽에서 국가 주도로 도핑 스캔들을 일으킨 러시아 선수단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엄격한 검증을 통과한 168명의 선수만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OAR)’ 소속으로 참가했다.

평창 대회는 동계올림픽 역사상 100개 이상 금메달이 걸린 최초의 대회다. 선수들은 평창에서 소치 대회보다 4개 늘어난 총 102개의 금메달을 놓고 4년간 키워온 기량을 겨룬다. 소치 대회 종목 중에서 스노보드 평행회전(남·여)이 제외되고 스노보드 빅에어(남·여), 스피드스케이팅 매스스타트(남·여), 알파인스키 혼성 단체전, 컬링 믹스더블이 새로 추가됐다.

우리나라는 안방에서 열리는 대회인 만큼 금메달 8개, 은메달 4개, 동메달 8개 등 20개의 메달을 획득해 역대 최고인 종합 4위에 오르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다.

개회식에서 전달하려 했던 핵심 메시지는 ‘행동하는 평화(Peace in motion)’였다. 한국인이 보여준 연결과 소통의 힘을 통해 세계인과 함께 행동으로 평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아내고자 했다.

2시간 20분가량 진행된 개회식 공연에서는 강원도에 사는 다섯 아이가 과거와 미래를 탐험하며 평화에 대한 답을 찾아 나서는 과정을 동화 같은 판타지로 펼쳐냈다. 아이들이 떠나는 시간여행에는 다보탑, 거북선, 해시계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유산과 사신도에 나오는 백호, 청룡, 현무, 주작 등 사신이 등장했다.

개회식 공연은 우리나라의 ICT 기술이 심반 발휘돼 보는 이의 감탄을 자아냈다. ICT 강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과시하고 4차 산업혁명 리더십에 대한 메시지



3 평창올림픽 개회식에서 '두껍아 두껍아' 노래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개회식 공연이 진행되고 있다. | 연합뉴스



를 디지털아트로 형상화해 호평을 받았다. 이날 오류기를 형상화해 평창 하늘을 수놓은 1218대 드론은 미국 인텔사가 제작한 '슈팅스타 드론'이었다. 개당 무게가 배구공보다 조금 무거운 330g 정도로 발광다이오드(LED)조명을 내부에 장착한 것이다. 드론 퍼포먼스는 '최다 무인항공기 공중 동시 비행' 부문에서 세계 기네스 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ICT와 평화가 어우러진 축제의 장

세계 최초로 구현된 ICT올림픽은 올림픽 현장이 아닌 곳에서도 즐길 수 있다. KT의 IPTV 서비스를 통해 경기 생중계와 다시보기 서비스를 무료로 볼 수 있다. 또한 올림픽을 보러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IPTV 지상파 채널에서 영어, 스페인어, 일본어, 중국어, 불어, 독일어 등 6개 국어 자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공연이 끝난 후 골프 여왕 박세리, 프로야구 홈런왕 이승엽,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 마라톤 금메달 황영조 등 한국을 대표하는 스포츠 스타 8명이 태극기를 손에 들고 등장했다. 이어 그리스를 시작으로 가나다순으로 92개 참가국 선수단이 입장했다.

마지막 순서는 남북한 공동 입장이었다. 한국 북

슬레이 간판 원윤종과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의 북한 수비수 황충금이 함께 든 한반도기를 따라 남북한 선수단이 한데 어우러져 입장했다. 북한은 피겨스케이팅을 포함한 5개 종목에서 선수 22명, 임원 24명 등 총 46명을 파견했다. 남북한은 여자아이스하키에서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단일팀을 구성해 개회식 다음날인 2월 10일 스위스와 첫 경기를 치렀다.

국제 스포츠 무대 개회식에서 남북 공동입장은 2000년 시드니올림픽을 시작으로 역대 10번째이자 2007년 창춘동계아시안게임 이래 11년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등 내빈은 물론 관람객들까지 남북한 선수단을 기립박수를 보냈다.

남북 공동입장이 끝난 후 이희범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 바흐 IOC 위원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바흐 위원장은 "이제 평창에서 대한민국과 북한 선수단이 공동 입장을 함으로써 강력한 평화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했다"며 "올림픽이 주는 경험을 모두 함께 나눴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전용기편으로 방남해 개회식에 참석한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도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며 남북한 선수단을 맞이했다.

이후 문 대통령의 개회선언과 함께 불꽃이 피어오르며 평창올림픽의 공식적인 개막을 알렸다. 성화 점화는 2010년 밴쿠버올림픽 피겨 금메달리스트 김연아가 장식했다. 전이경, 진선유, 박인비, 안정환 등 스포츠 스타들에 이어 마지막 주자인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의 박종아(한국)와 정수현(북한)으로부터 성화를 건네 받은 김연아는 '달항아리'를 모티브로 제작한 성화대에 화려한 불씨를 옮기며 개회식의 대미를 장식했다. 70억 세계인의 겨울축제 평창동계올림픽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다.



태극전사 145명 종합 4위 ‘아름다운 도전’

이정현 | 위클리 공감 기자

금메달을 따든 못 따든 올 것 같다.
경기를 마친 뒤 많은 분이 손뼉을
쳐줄 것으로 생각한다.
얼마나 내려놓는가에 따라
기록이 나온다. ‘이겨야지’ 하는
마음보다는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열심히 하겠으니 많이 응원해달라.

— 이상화 —



2017년 12월 9일 미국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 유타올림픽 오벌에서 열린 2017-2018 국제빙상경기연맹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4차 대회 여자 500m 2차 레이스에서 '빙속 여제' 이상화가 질주하고 있다. | 연합뉴스

15개 전 종목에 선수 145명, 경기 임원(코치 포함) 40명, 본부 임원 35명 등 220명으로 구성된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의 금빛 사냥이 시작됐다.

우리 선수단은 금메달 8개, 은메달 4개, 동메달 8개 등 20개의 메달로 종합 4위에 오르겠다는 목표다. 대한체육회는 평창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하도록 종목별 전담팀 등 전문인력을 최대 지원하고 정부합동지원단과 코리아하우스를 운영해 다각도로 선수단을 지원하고 있다. 144명 모든 선수의 선전이 기대되는 가운데 평창동계올림픽 메달 사냥에 나선 선수들을 소개한다.

스피드스케이팅

이상화, 일본 고다이라 누르고 3연패 갈까?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이상화(29·스포츠포토)는 일본의 강자 고다이라 나오와의 대결에서 승리해 밴쿠버와 소치올림픽에 이어 여자 500m 3연패라는 대기록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상화는 이번 시즌 ISU(국제빙상경기연맹) 월드컵에서 고다이라와 7번 만나 모두 지고, 2위만 5번 했다. 월드컵 7전 전승을 기록한 고다이라를 누를 이상화의 승부수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상화는 초반 100m에서 강한 가속도를 이용해 올림픽 재패를 노릴 전망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동계올림픽에서 따낸 금메달 26개는 쇼트트랙 21개, 스피드스케이팅 4개, 피겨 1개 등 빙상종목에서 나왔다. 하지만 올해는 스켈레톤, 스키, 컬링 등 새로운 종목에서도 메달리스트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남자 스피드스케이팅 매스스타트 세계 랭킹 1위인 이승훈(30·대한항공)도

이번 평창올림픽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매스스타트에서 초대 올림픽 챔피언 등극을 기대하고 있다. 여자 매스스타트 금메달은 김보름(25·강원도청)이 정조준하고 있다.

매스스타트는 자신의 레인이 고정된 다른 종목과 달리 최대 24명이 레인 구분 없이 출발해 400m 트랙을 16바퀴 도는 레이스다. 기록경기가 아닌 만큼 치열한 두뇌 싸움으로 선두를 지키는 게 중요한 종목으로 쇼트트랙과 비슷한 점이 많다.

이승훈은 평창동계올림픽에서 1500m를 제외한



1

1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1월 22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을 겨냥한 마지막 담금질에 들어갔다. | 연합
2 박우상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 주장 | 뉴시스

평창에서의 활약 기대해달라. 우리의 강점은 스피드다.
체력을 바탕으로 우리보다 체력이 큰 상대팀을 스피드로 거세게
압박한다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 같다. 귀화 선수들의 장비를 보면
항상 태극기가 있다. 애국가를 흥얼거릴 정도로 한국을 좋아한다.
선지해장국을 먹는 모습을 보며 '한국 선수가 다 됐구나' 하고 실감한다.

-박우상-

4종목에 출전한다. 이승훈은 지난 ISU 월드컵에서 남자 1500m, 5000m, 10000m, 매스스타트와 팀 추월까지 중·장거리 모든 종목의 출전권 5장을 확보했으나 1500m는 체력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포기했다. 모든 종목에 출전하려면 이를 간격으로 쉴 새 없이 경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장거리 주력 종목에 집중하기 위해 1500m를 건너뛰기로 한 것이다.

이승훈은 2010년 밴쿠버올림픽에서 10000m 금메달과 5000m 은메달을 목에 걸었으며 2014년 소치올림픽에서는 팀추월 은메달을 추가했다. 이번 평창올림픽에 처음 추가되는 매스스타트에선 이번 시즌 세계 랭킹 1위를 기록하면서 초대 챔피언 등극에 도전하고 있다.

김보름은 쇼트트랙 선수로 빙상에 입문해 2010년 스피드스케이팅으로 전향하면서 본격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팬들에게 알렸고, 여기에 쇼트트랙 기술이 가미된 매스스타트 종목을 통해 기대주로 부상했다. 김보름은 2016-2017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매스스타트에서 랭킹 1위를 차지한 강자다. 5차례 월드컵 시리즈에서 3차례나 우승을 따내고, 2차례 동메달을 목에 걸면서 전 세계에서 매스스타트를 가장 잘하는 여자 선수로 우뚝 섰다. 무엇보다 쇼트트랙에서 다진 코너링 기술이 매스스타트에서 빛을 발하면서 김보름은 자연스럽게 '평창 금빛 1순위'로 자리매김했다.

하키

남북단일 여자하키팀 세계적 기대

한국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 선수 23명에 북한 선수 12명이 가세해 총 35명으로 구성된 올림픽 역사상 최초의 단일팀이



2



2014 소치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멀게만 느껴졌던 평창올림픽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인 만큼 감회가 새롭다.
선수들 모두 자국 개최의 장점을
최대로 끌어올리려 노력하고 있다.

-심석희-



구성됐기 때문이다. 게임 엔트리는 그대로 22명이
고, 최소한 북한 선수 3명이 포함돼야 한다. 세계
평화를 추구하는 올림픽 정신이 남북단일팀을 통
해 전 세계에 화해의 메시지를 알릴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지난 1월 25일 진천선수촌에 합류한 북한
선수들은 28일부터 우리 선수들과 합동훈련을 소
화하고 있다.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 출신으로 ‘아이스하
키의 히딩크’라는 별명이 붙은 백지선(51·영어명
짐 팩) 남자아이스하키 대표팀 감독의 마법도 기대
된다. 백 감독은 “히딩크 감독과 비교되는 것은 영
광이다. 히딩크 감독은 대한민국 축구사에 길이 남
을 결과를 만들었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는 소
망을 밝혔다. 백 감독은 “우리의 목표는 변함없이

금메달”이라며 선전을 자신하고 있다.

쇼트트랙

간판스타 최민정·심석희 선전 기대

15개 종목 가운데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메달을 기대하는 종목은 전통의 ‘메
달 밭’인 쇼트트랙이다. 여자팀은 간판스타 최민정(20·성남시청)과 심석희(21·
한국체대)가 버티고 있어 금메달이 가장 기대된다. 남자팀도 임효준(22·한국체
대), 황대현(19·부흥고) 등 새로운 멤버로 전력을 보강해 평창에서 메달 사냥에
나선다.

여자 쇼트트랙은 4개 전 종목(500m·1000m·1500m·계주) 우승을 목표로 하
고 있다. 쇼트트랙에는 모두 8개의 메달이 걸려 있는데 한국 선수들이 강세를 보
이는 남녀 1500m와 1000m 외에 여자 500m에서도 첫 금메달에 도전한다. 여자
3000m와 남자 5000m 계주도 대표팀이 특히 욕심을 내는 종목이다. 지난 네 차
레의 월드컵 성적을 종합하면 최민정이 1500m 랭킹 1위, 500m와 1000m는 랭



1



많은 관심을 응원이라고 생각한다.
실전 연습이 잘 끝난 것 같다.
이제 정말 가장 중요한
마지막 시험이 남았다.
부담 가질 이유는 전혀 없다.

-윤성빈-

1 대한민국 쇼트트랙 대표팀 심석희(3번)가 2월 6일 강릉아이스아레나에서 훈련하고 있다.

2 스켈레톤 세계 랭킹 1위인 윤성빈이 1월 5일 독일 알텐베르크에서 열린 2017~2018시즌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 월드컵 6차 대회에서 1차 시기 스타트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킹 2위에 올라 있다. 심석희는 1000m와 1500m 종합 랭킹 3위다. 두 스타의 활약으로 여자팀은 계주 랭킹 1위를 기록했다.

쇼트트랙은 동계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한국이 가장 기대하는 종목으로 꼽힌다. 한국은 역대 동계 올림픽에서 금메달 21개뿐만 아니라 은메달 12개와 동메달 9개를 포함해 쇼트트랙에서만 42개의 메달을 획득해왔다.

스켈레톤

해성과 같이 등장한 윤성빈

가장 기대를 모으는 선수는 윤성빈(24·강원도청)이다. 윤성빈은 이번 시즌 월드컵에서 스켈레톤 황제 마르틴스 두쿠르스를 제치고 세계 랭킹 1위에

등극했다. 두쿠르스가 2009~2010시즌부터 무려 8시즌 연속 세계 랭킹 1위를 지켰기에 윤성빈의 등장은 해성과 같았다.

윤성빈은 2017~2018시즌 월드컵 1~7차 대회에 출전해 금 5개, 은 2개를 따내는 등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썰매 종목의 홈 이점이 유난히 크다는 점도 윤성빈의 금빛 승전보를 기대하게 하는 이유다. 세계에는 IBSF 공식 인증을 받은 트랙이 16개 있는데, 저마다 코스가 달라 해당 트랙에서 가장 많은 훈련을 해본 대회 개최국 선수가 여러 면에서 유리하다.

사실 윤성빈은 고등학교 3학년이던 2012년까지 올림픽과 거리가 멀었다. 운동 신경이 뛰어난 평범한 학생이었다. 스켈레톤에 도전해보라는 체육 교사의 권유가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다준 것이다.

금메달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있다. 라트비아 마르틴스 두쿠르스(34)는 '스켈레톤 황제'로 불린다. 두쿠르스는 2009년부터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IBSF) 남자 스켈레톤 부문 세계 랭킹 1위를 굳건히 지켜왔다. 윤성빈이 두쿠르스를 넘어설 수 있을지가 최대의 관전 포인트다.



그동안 힘든 일이 너무 많았는데
잘 극복했다. 올림픽은 모든
선수들의 꿈이다. 나에게도
마찬가지다. 꿈의 무대에 출전하는
것만으로도 영광이다. 최선을 다해
마무리하겠다. 새로운 기술보다
가진 기술을 안정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깨끗한 연기를
하는 것이 목표다.
잘 다듬어서 준비하겠다.

- 최다빈 -

평창에서 금메달을 꼭 따고 싶다.
알파인 스노보드를 많은 사람에게 알려
같은 운동을 하는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 이상호 -



11월 7일 서울 목동아이
스링크에서 열린 올림픽
최종 선발전 'KB금융 코
리아피겨스케이팅 챔피
언십 2018' 여자부 싱글
1그룹에 출전한 최다빈
이 경기를 펼치고 있다.
2 2017년 2월 19일 열린
2017 삿포로동계아시안
게임 남자 스노보드 대
회에 출전한 이상호가
경기를 펼치고 있다.
3 11일 오후 경북 의성군
의성컬링센터에서 쌍둥
이 컬링 형제 이기복(왼
쪽), 이기정 선수가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뒤를 잇는 최다빈

밴쿠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김연아의 뒤를 잇고 있는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최다빈(18·수리고)의 활약도 기대된다. 최다빈은 2017년 2월 삿포로동계아시안게임에서 최고의 기량을 선보였다. 총점 187.54점으로 개인 최고 점수를 경신하며 금메달을 차지한 것이다. 한국인 역대 최초의 아시안게임 피겨스케이팅 금메달이었다. 최다빈은 2017년 3월 말에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최고의 연기를 펼쳤다. 김연아 은퇴 이후 국내 선수로는 국제빙상경기연맹(ISU) 공인 최고점인 191.11점을 기록하면서 종합 10위에 올랐다. '톱 10'까지 주어지는 출전권 2장을 거머쥔 최다빈은 단숨에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기대주로 떠올랐다.

평창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은 러시아 예브게니아 메드베데바와 알리나 자기토바, 캐나다 케이틀린 오스먼드, 일본 미야하라 사토코, 미국 미라이 나카무라 등이 메달권에 근접해 있다. 세계적 스타들과 당당하게 겨룰 최다빈이 기대된다.

스노보드

설상의 희망 이상호

한국은 지금까지 동계올림픽 설상종목에서 단 하나의 메달도 따내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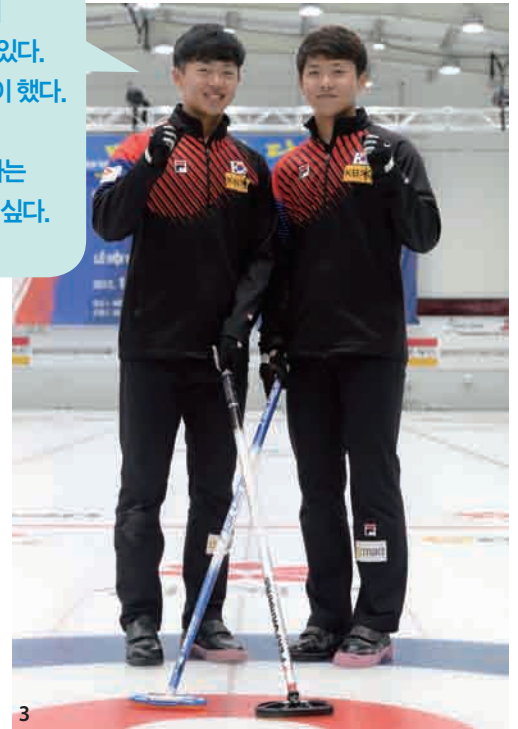


컬링의 매력 포인트는 끝까지
경기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올림픽 경기를 위해 정말 준비를 많이 했다.
우리 성적이 좋아야 컬링이
발전한다고 생각한다. 힘들게 사는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기쁨을 주고 싶다.

—이기복, 이기정—



2



3

안방에서 열리는 이번 올림픽에서 설상종목 첫 메달이 특히 기대되는 이유다. 메달 획득 가능성이 가장 큰 선수는 바로 스노보드에 출전하는 이상호(23·한국체대)다. 이상호가 참가하는 스노보드 평행대회전은 알파인 스키처럼 스노보드로 가파른 경사를 빨리 내려오는 속도를 겨루는 종목이다. 16강이 겨루는 결선부터는 두 명씩 토너먼트 맞대결을 통해 더 빨리 결승선을 통과한 선수가 다음 라운드 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상호는 이미 한국 스키 종목의 역사를 수차례 새로 쓰고 있다. 2017년 3월 터키에서 열린 월드컵에서 2위에 올라 한국 스키 사상 최초로 월드컵 메달을 획득했으며, 지난해 삿포로동계아시안게임에서는 2관왕에 올라 한국 스노보드 선수 최초로 아시안게임을 제패했다. 이상호는 '배추보이'로 유명하다. 초동 1학년때 아버지의 권유로 스노보드를 배운 이상호는 강원도 평창의 사북 출신이다. 이상호는 집 근처 고랭지 배추밭을 개량한 눈썰매

장에서 훈련했다. 국제 대회에서 뛰어난 실력을 올렸고 '배추보이'의 이름은 전국에 퍼졌다. 대회에서 우승을 한 직후에는 그에게 배추 선물이 쏟아지기도 했다.

컬링 쌍둥이 형제의 도전

쌍둥이 형제가 나란히 태극마크를 달고 고향인 강원도에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까지 함께 나간다. 남자 컬링(4인조) 국가대표 이기복(23)과 믹스터블(혼성 2인조) 컬링 국가대표 이기정(23)은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난 쌍둥이 형제다. 이들은 주니어 시절에도 함께 국가대표로 활동했다. 2017년 강릉에서 열린 세계 주니어컬링선수권대회에서는 남자부(4인조)에서 호흡을 맞춰 한국 컬링 사상 첫 금메달이라는 쾌거를 만들어냈다. 동생 이기정은 평창올림픽부터 정식 종목으로 새로 편입된 믹스터블로 전향했다. 형제는 "이번 올림픽으로 한국 컬링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생각도 하고 있다"며 "우리 성적이 좋아야 컬링이 발전할 거라 여긴다.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기쁨을 주고 싶다"며 형제 동반 메달을 꿈꾸고 있다. 4인조 컬링은 리드, 세컨드, 서드, 스킵 순으로 스톤을 던진다. 전략이 중요한 컬링 특성상 경기 중 네 명이 머리를 맞대 작전을 짠다. 반면 믹스터블은 남녀 두 명이 짝을 이룬다. 스톤은 두 명이 번갈아 던진다. 이기정은 장혜지(21)와 믹스터블 호흡을 맞추고 있다.



아이스하키 종주국 '캐나다 아성' 무너지나 피겨 김주식-럼대옥 북한 선수단 최고 경쟁력

이정현 | 위클리 공감 기자



2018 평창동계올림픽은 총 92개국 2925명의 선수가 등록해 동계올림픽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대회다. 이번 대회를 통해 동계올림픽에 데뷔하는 국가는 말레이시아(피겨스케이팅, 알파인스키), 싱가포르(쇼트트랙), 에콰도르(크로스컨트리스키), 에리트레아(알파인스키), 코소보(알파인스키), 나이지리아(봅슬레이, 스켈레톤) 등 6개국이다. 2014년 러시아 소치동계올림픽에는 88개국 2858명이 참가했다.

미국은 역대 동계올림픽 사상 단일 국가로는 가장 많은 242명의 선수를 등록했고, 캐나다 226명, 노르웨이 111명으로 출전 선수 명단을 확정했다. 북한은 5개 종목 총 22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도핑 사건으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징계를 받아 개인 자격으로 참가하는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러시아)는 15개 종목 169명이다. 전 세계 동계스포츠 스타들이 평창을 찾는 가운데 메달이 기대되는 별 중의 별을 소개한다.

아이스하키

최강 캐나다에 러시아의 강력한 도전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세계인의 이목이 가장 집중되는 종목은 단연 아이스하키다. 역대 동계올림픽에서 전체 수입과 관중 수입의 절반을 아이스하키 한 종목이 독차지했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그만큼 아이스하키를 빼놓고 동계스포츠를 이야기할 수 없다. 캐나다에서 아이스하키는 국기로 통한다. 다만 이번 대회에는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 선수들이 출전하지 않는다.

홍행에 대한 걱정이 있었으나 대회가 임박해오면서 오히려 NHL 스타들이 빠지면서 캐나다의 절대 1강 체제가 흔들린 까닭에 더 재미있는 경기가 펼쳐질 것

1 2014 소치동계올림픽 아이스하키 남자 결승에서 우승한 캐나다 남자 아이스하키팀
 2 북한 피겨 페어 김주식-럼대옥 조가 2월 2일 강릉 아이스아레나에서 첫 훈련을 하고 있다. | 연합



으로 기대하는 팬들이 많다. 아이스하키 중주국 캐나다는 1998년 나가노대회부터 지난 소치대회까지 금메달 5개 중 3개를 따냈다.

이런 가운데 세계 2위 리그인 러시아대륙간아이스하키리그(KHL) 소속 선수들로 대표팀을 꾸린 러시아의 도전이 심상치 않다. 1992년 프랑스 알베르빌 대회를 마지막으로 20여 년간 우승하지 못한 러시아는 NHL 선수들이 빠진 틈을 타 캐나다를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겠다는 각오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우세한 데다 국기와 국가를 잃은 데 따른 ‘울분’이 선수들을 한데 뭉치게 하는 분위기다.

실제 미국 스포츠 전문매체 ESPN은 NHL 선수들이 없는 평창 올림픽 남자 아이스하키를 조명하

며 러시아를 금메달 후보 1순위로 꼽았다. 이 매체는 “NHL 선수가 빠진 게 미국에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 전문가도 있다. 그러나 우승에 가장 가까운 팀은 러시아다. 러시아는 KHL 선수들을 대거 포함시켜 막강한 전력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여자 아이스하키의 절대 강자 역시 캐나다다. 캐나다는 여자 아이스하키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1998 나가노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에 그쳤을 뿐 2002년 솔트레이크동계올림픽부터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까지 올림픽 4연패를 달성했다. 캐나다는 미국과 함께 여자 아이스하키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다.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에서 캐나다가 금메달, 미국이 은메달, 스위스가 동메달을 땀는데, 조별 리그에서 미국은 스위스를 9-0으로 대파했다. 그만큼 다른 나라와 월등한 실력 차이를 보인다.

캐나다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의 공격수 메간 아고스타(30)는 여성 하키계의 최고 스타다. 하키 선수로는 작은 키(163cm)인데도 그의 실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는 2006 토리노올림픽부터 3회 연속 우승을 일궈냈다. 3회 연속 여자 하키 우승 신화는 아고스타가 유일하다. 2010 밴쿠버올림픽에서는 5경기에서 9골 6개 어시스트를 기록해 최우수선수(MVP)에 올랐다.

하키 선수로 유명하지만, 현재 본업은 경찰이다. 2014 소치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직후 아이스하키 중단을 선언하고 경찰로 다시 태어났다. 희망대로 밴쿠버 경찰관 배지를 달고 나서는 “어린 선수들이 ‘아고스타도 하는데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길 바란다”며 휴직계를 내고 다시 캐나다 국가대표로 돌아왔다. 2002 솔트레이크올림픽 이후 내리 4회 금메달을 휩쓴 캐나다 팀의 5연속 금메달 도전에 아고스타가 어떤 역할을 할지 기대된다.

스키

여왕과 요정의 대결

미국 여자 스키 대표팀에는 ‘스키 여왕’ 린지 본과 ‘스키 요정’ 미카엘라 쉬프린 등 세계적인 스타가 버티고 있다. 린지 본의 상승세는 무섭다. 린지 본(34)은 지난 1월 20일(현지 시각) 이탈리아 코르티나담페초에서 열린 2017-2018 국제스키연맹(FIS) 알파인스키 월드컵 여자 활강 경기에서 1분 36초 48로 가장 빨리 결승선을 통과했다.

미국의 미카엘라 쉬프린은 2014년 소치대회 알파인스키 회전 종목에서 역대 최연소(19세)로 우승했다. 지난 시즌 FIS 월드컵대회에서는 종합 우승을 했고, 이번 시즌도 1위를 달리고 있다. 회전·대회전이 주 종목인데, 활강과 슈퍼대회전에도 꾸준히 출전하며 다관왕을 노리고 있다.

피겨스케이팅

184.98점 북한 김주식-럼대옥 조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선수단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선수는 피겨스케이팅의 김주식-럼대옥 조다. 지난 2015년부터 짝을 이뤄 활동한 이들은 북

한 선수단에서 가장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삿포로아시안게임에서 피겨 페어 부분 동메달을 획득했다. 또 국제빙상경기연맹(ISU) 네벨혼 트로피에 출전해 자력으로 평창행 티켓을 따냈다. 이후 선수 등록을 하지 않아 올림픽 출전이 무산될 뻔했지만 지난달 20일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남북 대표단 회의 끝에 구제받았다.

김주식-럼대옥은 지난달 열린 국제빙상경기연맹 4대륙 선수권에서도 184.98점의 개인 최고점을 경신하며 동메달을 수확하는 등 최근에도 물오른 기량을 뽐내고 있다. 평창올림픽 경기 중 가장 먼저 입장권이 매진된 종목은 남자 피겨스케이팅의 프리 스케이팅이다.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세계 랭킹 1위인 하뉴 유즈루(일본)가 일본 대표팀에 합류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 하뉴는 평창에서 네이션 쉐(미국) 등의 도전에 맞서 올림픽 2연패를 노린다.

2014 소치동계올림픽 챔피언인 하뉴는 작년 말 국제빙상경기연맹(ISU) 그랑프리 NHK 트로피 연습 도중 넘어지면서 발목을 다쳐 치료와 재활을 받았다. 부상 회복이 더뎠지면서 지난 1월 21~24일 평창올림픽 대표 선발전을 겸해 열린 일본피겨선수권대회에도 불참했지만, 규정에 따라 세계 랭킹 등 다른 기준 적용으로 대표팀에 합류하게 됐다. 부상 탓에 오랜 기간 연습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한 하뉴가 평창에서 제 기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일본은 하뉴와 더불어 우노 쇼마와 다나가 게이지가 평창올림픽 남자 싱글에 출전한다. 여자 피겨스케이팅은 러시아의 상승세가 뚜렷하다. 러시아 선수단에는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부문의 강력한 우승 후보인 예브게니아 메드베데바와 알리나



2017년 3월 5일 강원 정선알파인경기장에서 열린 국제스키연맹(FIS) 알파인 월드컵 여자 슈퍼대회전에서 린지 본이 질주하고 있다. | 연합뉴스



1



2

1 2017년 4월 22일 일본 도쿄 국제빙상연맹 피겨스케이팅대회 여자 프리스케이팅에 출전한 예브게니야 메드베데바

2 소치동계올림픽 스노보드 남자 하프파이프에 출전한 손 화이트연합

자기토바 모두 포함돼 있다.

2016-2017 세계선수권 챔피언인 예브게니야 메드베데바는 오른발 등 골절 부상으로 두 달 정도 공백기를 가졌다. 그 결과 최근 유럽선수권에서 알리나 자기토바에 밀려 2위를 차지했다. 자기토바는 그랑프리파이널, 러시아선수권에 이어 유럽선수권 1위를 차지해 어느 때보다 금메달 가능성이 높다. 다만 두 선수의 기량이 막상막하라 승부는 겨뤄봐야 알 수 있다.

스노보드

황제 손 화이트 기대

스노보드 하프파이프는 동계올림픽 최고 흥행 종목 중 하나다.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듯 하늘에서 가장 다이내믹한 묘기를 펼치는 경이다.

‘스노보드 황제’ 미국의 손 화이트(31)는 스노보드 하프파이프를 지금의 인기 종목으로 끌어올린 선구자나 다름없다. 2010 밴쿠버동계올림픽 금메달에 빛나는 화이트는 사상 최초로 100점 만점을

받을 만큼 독보적인 기량을 뽐냈다. 평창동계올림픽에서 하프파이프 정상탈환을 노리는 손 화이트의 도전은 가시밭길이었다. 그는 연습 도중 다쳐 수습 바늘을 꿰매고도 올림픽 출전을 향한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당시 그는 “새로운 기술을 연습하던 중 하프파이프에 다시 들어가다 부딪혔다”면서 “22피트(약 7m) 정도를 날아가 바닥에 얼굴을 부딪쳐 62바늘을 꿰매고 폐에도 타박상을 입었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러한 부상에도 평창올림픽을 향한 출전 의지를 다졌던 그다. 2006 토리노동계올림픽, 2010 밴쿠버동계올림픽에서 하프파이프 금메달을 목에 건 그는 2014 소치동계올림픽에서는 4위에 머물렀다. 그때의 부진을 씻고 명예 회복에 성공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한편 평창올림픽에서 스코티 제임스(23·호주)가 화이트를 뛰어넘어 새로운 왕자로 군림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임스에게 평창은 낯설지 않다. 제임스는 지난해 2월 평창올림픽을 1년 앞두고 평창군 휘닉스 스노우파크에서 열린 국제스키연맹(FIS) 스노보드 월드컵 하프파이프 남자부 결선에서 화이트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당시 제임스는 2차시기까지 화이트에 뒤졌으나 마지막 3차시기 때 하늘에서 세 바퀴 반을 도는 1240도 백팩립에 성공해 대역전극을 만들어냈다. 1월 윈터 X게임 슈퍼파이프에서도 정상에 올랐던 그는 그 기세를 이어가 3월 스페인 시에라네바다에서 열린 2017 FIS 스노우보딩 월드 챔피언십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2017년 호주 올해의 남자 스포츠 선수로 선정됐고 평창올림픽 금메달을 향해 달리고 있다.



알고 봐야 더 재미있다! 종목별 하이라이트 & 관전 포인트

이근하 | 위클리 공감 기자



평창동계올림픽은 1988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올림픽이자 첫 동계올림픽이다. 아울러 동계스포츠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우리나라 동계스포츠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라고 평가받는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던가. 올림픽도 예외는 아니다. 이번 동계올림픽에서는 15개 종목 102개 세부종목의 경기가 치러진다. 이 가운데 정확히 알고 관전할 수 있는 종목은 몇 개나 될까. 피겨스케이팅이나 쇼트트랙과 같이 어느 정도 익숙한 종목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봐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종목도 상당수다. 알고 봐야 더욱 짜릿한 평창동계올림픽, 경기 규칙부터 관전 포인트까지 안내한다.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가장 먼저 우리나라 동계스포츠의 전통 메달밭을 꼽으려면 단연 '빙상 종목'이다. 금메달 6개로 종합 5위에 올랐던 2010 밴쿠버동계올림픽을 넘어 금메달 8개로 종합 4위를 목표하는 것도 빙상 종목 메달 사냥을 기대할 수 있어서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금메달이 예상되는 종목은 여자 쇼트트랙. 1994 릴레함메르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2개를 따낸 것을 시작으로 2014 소치동계올림픽까지 메달을 손에 쥐지 못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이번 평창동계올림픽 관전 포인트로 자주 언급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최민정과 심석희 쌍두마차를 필두로 김아랑, 김예진, 이유빈 등 5명이 금빛 물결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최민정과 심석희 두 선수가 올 시즌 1500m 세계 랭킹 1·2위에 나란히 올라 있는 만큼 이들의 메달 색 결정전이 될지 눈길을 끈다. 순위는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서대로 결정된다. 각 경기마다 상위 2~3명의 선수만 다음 출전 기회를 보장받기 때문에 기록보다 순위가 중요하다. 다만 몇몇 선수들의 '나쁜 손'이 변수다. 쇼트트랙에서는 일부 몸싸움이 허용되는 터라 이번이 속출한다.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나는 쇼트트랙 경기 명장면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온전히 집중할 것을 권한다.

스피드스케이팅



쇼트트랙과 더불어 효자 종목으로 입지를 굳힌 스피드스케이팅도 메달 유력 종목 중 하나다. 스케이틀을 신은 두 경쟁자가 400m 트랙 위에서 속도를 겨루는 종목이다. 여느 종목과 마찬가지로 메달 여부가 가장 큰 관전 포인트이지만 속명의 한일전이 경기 분위기를 한껏 달궈줄 전망이다. 간판선수 이상화가 500m 경기에서 일본 선수 고다이라 나오와 한판 승부를 벌인다. 일명 '성난 고양이' 자세로 상승세를 탄 고다이라의 질주를 '빙속 여제' 이상화가 막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 다른 관전 요소는 평창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첫 채택된 매스스타트 경기다. 단 두 명의 선수가 트랙에 오르는 다른 종목과 다르게, 출전한 모든 선수가 정해진 트랙 없이 경

주한다. 총 16바퀴를 도는데 4번째, 8번째, 12번째 바퀴
째 1, 2, 3위에게 각각 5, 3, 1점이 주어진다. 마지막으로
결승선을 통과하는 1, 2, 3위에게는 각각 60, 40, 20점이
부여되며 점수 합산 순위로 승부가 나뉜다.

이 종목을 눈여겨보아야 하는 이유는 이승훈과 김보름, 남
녀 선수 모두 세계 상위권에서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두 선수는 쇼트트랙에서 전향해 매
스스타트 종목에 필수적인 몸싸움과 레이스 운영 능력
이 탁월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스피드스케이팅 규칙을
모르더라도 마음 편하게 경기 관전을 해도 좋다. 누가
가장 빠르게 달리는지만 파악해도 경기 내용을 이해하
고 있는 것이다.

피겨스케이팅



피겨스케이팅은 김연아 전
국가대표 선수를 통해 익히
알고 있는 빙상 종목이다.
음악에 맞춰 빙판을 활주하
며 기술의 정확성과 아름다
움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포

인트다. 올림픽에서는 남녀 개인이 출전하는 싱글, 남녀
가 한 조를 이루는 아이스댄스와 페어, 팀이벤트 등 총 5
개 종목이 진행된다.

이 중 남녀 싱글과 아이스댄스 3개 종목에서 세계 신기
록 보유자들이 출전하는 만큼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새
로운 기록이 세워질지 흥미롭다.

피겨스케이팅만큼 채점 기준이 세분화된 종목을 찾지
도 힘들다. 쇼트프로그램과 프리스케이팅 두 종목을 합
산한 점수로 순위가 결정된다. 더욱 세부적으로는 프
로그램마다 기술점수와 구성점수가 매겨진다. 까다로
운 채점 기준만큼 심판도 열두 명이나 된다. 기술을 제
대로 수행했는지를 판단하는 테크니컬 패널(Technical
Panel) 세 명과 수행 점수를 매기는 저징 패널(Judging
Panel) 아홉 명이다. 한편 피겨스케이팅에서 안무와 음
악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의상이다. 의상이 음악과 열마
나 조화로운지 감상하는 재미는 덩이다.

아이스하키



유일한 득점 경기 아이스하키는 빼놓을 수 없는 인기 종목이
다. 상대방의 골대에 펙(공)을 넣기 위해 벌이는 거친 몸싸움
은 보는 사람까지 들썩이게 한다. 한 팀은 골키퍼 2명과 플레
이어 20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되지만 링크에 출전하는 선수
는 6명이다. 경기 중 언제든지 22명 전원을 자유롭게 교체할
수 있다. 경기시간은 20분씩 3회로 총 1시간이다. 각 20분을 1

피리어드라고 하는데 각 피리어드 사이에 15분 동안 휴식시간이 주어진다. 3피리어드로
승부가 나지 않을 경우 토너먼트에서는 10분 연장전을 실시하고, 선취 득점과 동시에 경
기가 종료된다. 단 리그전에서는 무승부로 경기가 끝난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이스하키
여자 남북 단일팀이 보여줄 필승 전략에 이목이 집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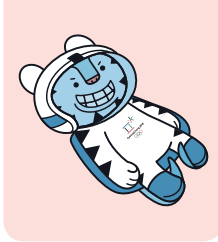
스켈레톤



과거 대회에서 메달이 없던 종목이라고 해서 이번에도 따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동안 빙상에 가려졌지만 짧은 기간 빠르
게 성장한 종목들도 지켜볼 가치가 있다. 썰매에 엮드린 자세
로 경사진 얼음 트랙을 활주하는 종목, 스켈레톤이 대표적
이다. 우리나라 최초로 메달에 도전하는 세계 랭킹 1위 윤성빈
을 주목하자. 스켈레톤은 트랙마다 특성이 달라 홈 트랙 이점

이 크게 작용한다는 점에서 그의 금메달 가능성은 누구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스켈레톤 선수는 출발선에서 썰매 좌우 손잡이를 잡고 직선 코스로 약 30m를 달려 가속
한 뒤 썰매 위에 엮드린다. 방향 조종이나 제동을 보조하기 위한 장비는 금지되기 때문에
어깨와 머리, 다리로만 조종한다. 무엇보다 머리부터 내려오는 만큼 위험도가 높아 턱 보
호대가 부착된 헬멧, 팔꿈치 보호대 착용이 필수다. 순위는 총 네 차례 활주한 시간을 합
산해 결정한다.

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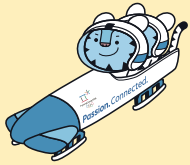


루지는 소형 썰매에 누운 채 1000~1500m를 활주하는 스
포츠다. 이때 자세는 발은 전방으로, 얼굴은 하늘로 향한다.
경기는 1인승과 2인승, 단체전 계주로 나뉜다. 1인승은 남
녀를 구분해 치르고 2인승은 남녀를 구분하지 않는 것이 원칙
이다. 1인승은 이틀에 걸쳐 네 차례, 2인승은 하루에 두 차례
활주해 기록을 합산한 뒤 소요시간이 가장 적은 사람의 순

서로 순위를 정한다. 1000분의 1초까지 계측한다. 1000분의 1초 경쟁이기 때문에 찰나
의 순간에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종목이다. 알려지지 않은 선수들의 역전 가능성을 지
켜봐도 좋다.



봅슬레이



어느 때보다 높은 인기를 자랑하는 썰매 종목은 봅슬레이와 루지다. 이 중 봅슬레이는 방향 조종이 가능한 썰매를 타고 얼음으로 이루어진 트랙을 활주하는 경기다.

선수들은 힘을 모아 봅슬레드(썰매)를 밀면서 출발한 뒤 탄력이 붙으면 재빨리 각자 자리로 뛰어올라 앉는다. 탑승한 모든 선수가 한 몸처럼 움직여야 활주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동계올림픽에서는 오픈 4인승, 남자 2인승, 여자 2인승 등 총 3개의 종목이 진행된다. 2인승은 2회, 4인승은 4회 활주한 뒤 그 합계로 순위를 결정한다. 2인승에는 조종 역할을 하는 파일럿과 제동을 담당하는 브레이크맨이 탑승한다. 4인승은 썰매를 밀고 나가는 역할의 푸시맨 두 명이 추가된 셈이다. 봅슬레이 남자 2인승의 원윤종과 서영우도 썰매 메달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만약 현장에서 경기를 본다면 관람 지점에 따라 다른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다. 스타트 지점에서는 선수가 박차고 나가 썰매에 오르는 역동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한편 피니시 지점에서는 제동에 따른 눈보라를 볼 수 있다.

스노보드



스노보드 또한 놓치면 섭섭한 경기다. 올림픽 역사는 짧은 축에 속하지만 박진감은 설상 종목 가운데 손에 꼽힌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스노보드 알파인의

이상호 선수가 한국 설상 종목 사상 최초로 메달을 노리고 있는 점도 관련 포인트다. 스노보드는 두 발을 보드에 고정한 채 슬로프를 질주하는 종목이다.

1960년대 미국에서 서핑보드와 스키를 결합한 놀이 형태로 인기를 끌면서 겨울 스포츠로 발전했다. 국내에서도 겨울이면 남녀노소가 즐길 만큼 대중적인 스포츠다. 평창동계올림픽에서는 기존 세부 종목(평행대회전, 하프파이프, 스노보드 크로스, 슬로프스타일)과 함께 신설

종목인 빅 에어가 열린다. 빅 에어는 큰 점프대 1개를 도약해 공중요기를 선보이는 경기다. 스노보드 기술을 모두 외우지 못한다면 하나만 기억하라. 보드를 잡는 기술 '그랩'. 보드를 얼마나 오랫동안 잡고 있는가를 보는 것만으로도 그 선수의 기량을 가늠할 수 있다. 장시간 그랩을 잡고 있는 선수일수록 뛰어난 실력을 자랑한다.

알파인스키



하계올림픽 종목 중 땅 위에서 속도를 거르는 육상이 있다면 동계올림픽에는 눈 위에서 빠른 속도를 내야 하는 알파인스키가 있다. 설상 종목의 꽃이라고도 불리는 알파인스키는 폭발적인 속도와 현란한 기술을 자랑한다. 세부 종목은 스피드(속도) 종목과 테크니컬(기술) 종목 등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이들 모두 뒤꿈치가 고정된 바인딩을 장착한 스키를 타고

고 눈 덮인 경사면을 내려와야 한다. 혼성단체전의 경우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처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각각 남, 여 2명씩 총 4명이 한 팀을 이루며 같은 성의 선수끼리 경쟁해 승리하면 1점을 얻는다. 이 같은 방식으로 3점 이상 선취하는 팀이 승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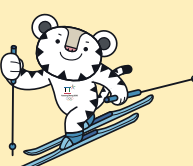
프리스타일 스키



기존 스키 경기와는 또 다른 긴장감을 찾다면 프리스타일 스키를 추천한다. 이 종목은 자유로운 활강에 공중곡예를 더해 예술성을 겨루는 게 핵심이다. 설원의 서커스라고 불리는 이유기도 하다. 1988 캘거리대회에서 시범종목으로 첫선을 보인 이후 1992 알베르빌대회에서 모굴, 1994 릴레함메르대회에서 에어리얼, 2010 밴쿠버대회에서 스키 크로스, 2014

소치대회에서 스키 하프파이프와 스키 슬로프스타일이 정식 정목에 포함되면서 오늘날의 세부 종목을 갖추게 됐다. 다양한 종목만큼 경기 방식과 채점 방법도 제각각인데 스키 크로스는 유일하게 점수가 아닌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서로 순위가 결정된다. 정해진 기술이 없는 경기라는 점을 기억해두자. 어느 선수가 어떤 곡예로 세계를 놀라게 할지 모른다는 이야기다. 공중에서 사방으로 몸을 뒤집는 선수들의 모습에 간담이 서늘해질 수도 있겠지만 프리스타일 스키만의 묘미다.

크로스컨트리 스키



크로스컨트리는 '통과하다'는 의미의 'Cross'와 '지역'을 뜻하는 'Country'가 더해진 이름처럼 눈 위의 마라톤이다. 눈 쌓인 들판을 달리는 순서대로 순위가 매겨진다. 언뜻 봐서는 알파인스키와 흡사해 보이지만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알파인스키는 경기 코스가 스키장 슬로프에 국한된 반면 크로스컨트리 스키 코스는 평지, 오르막길, 내리막길이 각 3분의 1 비율

로 다양하다. 또 스키화 전체가 바인더에 고정되는 알파 인스키와 달리 크로스컨트리 스키는 스키화의 앞쪽만 고정하고 뒤축은 자유롭게 떨어지는 형태다.

만약 여러 선수가 같은 기록으로 통과한다면 사진 판독을 통해 순위를 가른다. 스키가 아닌 두 발 중 앞선 발의 발가락 부분이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서다. 경기 중 선수가 음식을 먹는다고 해도 놀라지 마라. 크로스컨트리는 장거리 경기인 만큼 체력 소모가 남달라 간식을 제공하는 급식소가 경기 구간에서 운영된다. 15km에 1곳, 30km에 3곳, 50km에 6곳이다.

바이애슬론



바이애슬론은 다소 이색적으로 보일 수 있는 종목이다. 다른 성격의 종목인 크로스컨트리 스키와 사격이 결합됐기 때문이다. 과거 유럽 산악지대 주민들이 스키를 신고 사냥감을 쫓던 수렵에서 유래했다. 명칭 또한 ‘뿔’을 뜻하는 ‘bi’와 ‘운동 경기’를 가리키는 ‘athlon’의 합성어다.

바이애슬론 선수들은 총을 등에 멘 채 스키를 타고 일정 거리를 주행하며 정해진 사격장에서 사격을 해야 한다. 사격 자세는 복사(엎드려썩)와 입사(서서썩) 두 가지. 스키 주행 시간과 사격 정확도에 따라 최종 순위가 가려진다. 정확한 경기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싶다면 전광판 확인은 필수다. 선수의 발목에 부착된 전자태그에 의해 기록이 실시간 집계돼 전광판에 표시되기 때문에 순위가 쉴새 없이 변한다.

스키점프



우리나라에서는 영화 ‘국가대표’로 익숙해진 종목이다. 스키를 타고 급경사면을 활강해 내려오다 도약대에서 직선으로 허공을 날아 착지하는 스키 경기다. 관건은

가장 멀리 그리고 안정적으로 비행하는 것. 채점은 비행 거리와 자세, 두 가지 요소로 이뤄진다. 다섯 명의 심판은 각각 20점 만점에서 비행자세와 착지자세의 불안정 정도를 파악해 요소마다 점수를 매긴다. 그중 가장 높은 점수와 낮은 점수를 제외한 세 명의 점수를 거리 점수와 합산해 순위를 결정짓는다. 관중석에서 경기를 본다면 구간마다 달라지는 소리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출발 직후 하강하는 소리는 마치 로켓이 발사되는 소리 같다면 도약대에서 발을 뗄 짧은 순간에는 고요함이 찾아온다.

노르딕 복합



노르딕 복합은 크로스컨트리 스키와 스키점프를 동시에 치르는 경기다. 강인한 체력과 높은 기술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스키 경기 중에서도 꽤 어려운 종목으로 꼽힌다. 극심한 체력 소모 탓에 동계올림픽과 세계선수권 모두 남자부 경기만 진행한다. 개인 경기와 팀 경기 모두 스키점프를 먼저 뛰고 크로스컨트리 스키로 마무리한다. 스키점프 경기 결과가 가장 좋은 순서대로 크로스컨트리 스키를 출발하게 된다.

노르딕 복합에 출전하는 우리나라 선수는 박제언 한 명뿐이다. 스키 종목 자원이 취약한 국내에서는 불가피한 현실이다. 박제언 선수가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이변을 일으킬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또 다른 재미다.

컬링



컬링은 네 명의 선수가 한 팀을 이뤄 길이 45.72m, 너비 5m의 직사각형 모양의 ‘컬링 시트’에서 펼치는 경기다. 선수들은 컬링스톤을 빙판에 던지고, 스톤을 표적 중심에 가장 가까이 넣는 팀이 득점한다. 스톤의 움직임은 선수들의 빗질에 따라 갈린다. 정확히는 ‘스위핑’이라고 하는데 빗질이 어긋나면 스톤의 진행 방향과 속도가 바뀌는 것은 순식간이다.

만약 이동 중인 스톤을 건드릴 경우 무효 처리가 된다. 다시 스톤을 던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한번의 기회가 사라진다. 멈춘 스톤을 건드릴 경우에는 스톤이 멈춰 있던 원래 위치로 되돌려놓아야 한다.

스톤을 던지고 스위핑 하는 선수들이 있는가 하면 먼발치서 소리를 지르는 선수가 있다. 스톤 위치를 지정하고 전술을 세우는 등 주장을 겸하는 선수(스킵)다. 스톤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그 팀의 전략을 추측해보는 건 어떨까.



20년 스포츠대회 봉사자, 경계지원 군장병... “방식은 달라도 열정과 보람은 하나”

이근하 | 위클리 공감 기자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향한 응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각자 다른 곳에서 저마다 방식으로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말 그대로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를 통해 힘을 더하는 사람들도 있다. 조금 특별한 응원법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한다.

세계 4대 스포츠대회 자원봉사 설립

매서운 바람에 입이 얼어붙어 발음이 제대로 되지 않는데도 연신 싱글벙글했다. 평창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 황보순철 씨가 자신 있게 들어 보인 각종 스포츠대회 AD카드(승인카드)는 그 환한 표정의 이유를 대신 설명해줬다. 황보 씨는 1986 서울 아시안게임을 시작으로 1988 서울올림픽, 2002 한일월드컵,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 등 숱한 국제대회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다. 이번 평창올림픽 자원봉사자 경력까지 더해지면서 세계 4대 스포츠대회를 섭렵해 자원봉사자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게 됐다. 평창올림픽 AD카드를 수령했을 때 유독 벅찬 기분이 들었다고 했다.

“평창이 두 번의 실패를 겪고 2011년이 돼야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데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자원봉사자 그랜드슬램을 앞둔 한 사람으로서 동계올림픽 개최를 염원했고 유치가 결정된 순간부터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만 손꼽아 기다렸어요. 스포츠에 대한 유별난 애정이라기보다 작게나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보람이 크기 때문이에요.”

스포츠 대회의 자원봉사자가 돼야겠다고 처음

결심한 건 20여 년 전이다. 1984년 LA올림픽 방송 중계 화면에 비친 외국인 학생들의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면서다. 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멋지고 가치 있는 일임은 분명해 보였다. 그는 줄곧 출입통제를 담당하는 자원봉사를 맡았다. 경찰 업무를 도와 수많은 사람들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임무였다. 평창올림픽에서는 AD카드 발급 안내를 돕고 있다.

황보 씨가 머물고 있는 숙소부터 평창 근무지까지는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 매일 출퇴근 버스 안에서 자원봉사자들과 나누는 이야기는 소소한 재미다. 자원봉사를 위해 시험을 포기하고 캐나다에서 왔다는 유학생부터 나이 지긋한 장년까지 저마다 다른 곳에서 모였지만 서로 힘이 되는 존재다.

“한 대학생 자원봉사자가 그동안 모아둔 제 AD카드를 보더니 대신 자부심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오길 잘했다고 다시 한 번 느끼는 계기가 됐어요. 자원봉사의 대가가 없다고 하지만 이러한 경험은 그 어떤 대가 이상입니다.”

그의 이번 자원봉사는 첫째 아들과 함께한다는 점에서 조금 특별할 수도 있다. 아들은 단기 운전 인력으로 선발됐다. 근무지가 다른 탓에 마주치지 는 못하지만 아들이 전송해준 사진 속 표정이 매우 밝아 뿌듯하다고 했다. 한편으로는 근무기간 동안 대구에서 자신을 대신해 문방구를 운영하고 있을 아내에게 미안함도 드러냈다.

황보 씨는 지난 봉사활동 경험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묻는 질문에 “2002 한일월드컵”이라고 답변했다. 당시 그가 거주하는 대구에서 준결승전이 치러졌는데 커다란 함성이 불려온 짜릿한



1 황보순철씨가 그동안 자원봉사로 활용한 AD 카드를 들여보이며 웃고 있다. | C영상미디어
 2 육군 11사단 박준현 상병과 김영훈 일병이 올림픽 메인 경기장에서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 육군

은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고. 그런 순간에 자원봉사자로서 흔적을 남겼다는 것 자체가 자긍심을 갖게 했다. 평창올림픽에서도 재현됐으면 하는 게 그의 작은 바람이다.

“유독 추운 날씨 때문에 건강이 걱정되는 건 사실이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괜찮아요. 출전하는 선수들 모두 그동안 닦은 기량을 마음껏 뽐낼길 응원하며 저 또한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도 감사해요.”

육군, 안전올림픽 지원 이상무

평창동계올림픽 현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자원봉사자는 비단 민간 자원봉사자나 단기 고용 인력뿐만이 아니다. 육군은 인력이 부족한 곳곳의 지원을 위해 장병 8300여 명을 투입했다. 그중에서도 자발적으로 적극적인 활동에 나선 군장병들을 소개한다. 가장 먼저, 오매불망 기다리던 전역 날짜를 미룬 육군 장병이 있다. 그 이유는 놀랍게도 평창올림픽 경계지원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다. 2017년 전문하사로 임관한 박희민 하사(11사단)는 원래대로라면 그해 11월 10일에 전역했어야 한다. 그러나 소속 부대가 올림픽 지원 임무를 받게 되자 4개월 뒤인 2018년 3월 10일로 전역일을 자진 연기했다.

“주둔지를 벗어나 장기간 고생해야 하는 전우들에게 보탬이 되고 싶어 전역 연기를 결심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축제의 장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를 수



2월 7일 강릉 올림픽선수촌에서 자원봉사자들이 파이팅 구호를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있도록 전우들과 함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기도 했고요.”

박 하사는 경기장과 가장 인접한 곳에서 인원과 차량을 통제하고 예기치 않은 위험이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는 “이번 경험은 군 생활 자랑거리 중 하나”라며 “전역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장 순찰과 경계임무를 수행하는 또 다른 육군 장병 박준현 상병(11사단)은 아버지에게 이은 2대째 ‘올림픽 지킴이’다. 박 상병의 아버지 박영상 씨는 소대장으로 복무하던 중 1988년 7월부터 12월까지 서울올림픽 경기장 일대 경계임무를 수행한 바 있다.

“유독 추운 날씨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지만 30년 전 아버지가 하신 가치 있는 경험을 저 또한 할 수 있어 영광스럽습니다. 평소 스키를 좋아하고 영화 ‘국가대표’를 재미있게 본 터라 실제 스키점프대를 마주하니 새삼 감격스럽고 경기 결과가 기대됩니다.”

홍콩 영주권자임에도 입대를 자원한 박재형 병장(36사단)의 활약도 주목할 만하다. 박 병장은 슬라이딩센터에서 스킨레이, 봅슬레이, 루지 경기 대회운영지원원을 할 예정이다.

“개인적으로 스킨레이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으며 윤성빈 선수를 응원합니다. 무엇보다 세계가 지켜보는 국제 대회에서 막중한 역할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예나 중위(11사단)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NTO)이다. 스키·스노보드 크로스 경기 게이트 저지(Judge)를 맡았다. 총괄 심판은 아니지만 선수들이 정해진 구간에서 넘어졌는지, 코스 안내 깃발을 이탈했는지 등을 판단하는 역할이다.

“고대하던 행사에 몸을 담게 돼 설렙니다. 출전하는 선수 모두 오랜 기간 고생

한 만큼 값진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특히 과거 아쉬운 판정과 같은 일이 없도록 제 자리에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한편 평창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는 모두 2만여 명(패럴림픽 자원봉사자 포함). 자원봉사자 모집 이후 면접심사와 외국어 테스트, 기본 교육 등 약 1년 동안의 여정을 거쳐 선발된 인원들이다. 이번 올림픽 슬로건인 ‘하나된 열정(Passion, Connected)’에 따라 열정을 의미하는 ‘패션(Passion)’과 동료들 가리키는 ‘크루(Crew)’를 합친 ‘패션크루(Passion Crew)’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아울러 김병만 패션크루 대장과 자원봉사자 전원은 지난해 11월 공식 출범 선포식에서 선서문을 낭독하며 대회에 임하는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김 대장과 자원봉사자들은 “패션크루는 평창동계올림픽대회와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 이를 통한 세계 평화의 주역”이라며 올림픽 정신을 재정의했다.

자원봉사자들은 직무교육과 현장교육을 마치고 올림픽 자원봉사자는 2018년 1월 1일부터 최대 59일, 패럴림픽 자원봉사자는 2월 19일부터 최대 31일간 대회의 핵심인력으로 활동한다.

색다른 응원법 어디 없나요

이근하 | 위클리 공감 기자



1 여주여중 학생들은 아이스하키 경기장에서 직접 응원을 펼칠 예정이다. 2 경기 티켓 180장이 모여 만든 평창 문구 모습 | 여주여중

서울 도심 한복판에 평창올림픽 응원 공간이 준비된다. 올림픽 경기장까지 가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래고 싶다면 이곳을 추천한다. 서울 홍대 정문 맞은편에 위치한 약 20미터 높이의 자이언트 자판기다. 1928 암스테르담올림픽부터 90여 년 동안 가장 오래된 올림픽 파트너사인 코카콜라가 조성한 곳이다. 5층으로 구성된 자이언트 자판기에서는 평창올림픽 종목 체합과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응원이 가능하다. 설원의 평창 느낌을 재현한 1층과 동계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2층 그리고 음료를 마시면서 휴식할 수 있는 3층이 있다.

자이언트 자판기는 설 당일을 제외하고 평창올림픽 폐막일 다음 날인 2월 26일까지 상시 운영된다. 관람시간은 낮 1시부터 저녁

9시까지이며, 입장권 발급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CokePLAY)에서 하면 된다.

10대 학생들의 이색 응원법도 있다. 최근 경기도 소재 여자중학교 인근 체육관 바닥에 '평창'이라는 두 글자가 펼쳐졌다. 그림도 스티커도 아닌 여자 아이스하키 경기 티켓 180장을 모아 만든 글자다. 어릴 적 텔레비전에서 1988 서울올림픽을 보고 직접 응원의 꿈을 키워왔다는 여주여중 교사 채용기 씨의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

채용기 씨는 서울올림픽 현장에서 응원하지 못했던 아쉬움과 2002 한일월드컵 당시 제자들과 거리 응원전을 하며 쌓았던 추억을 떠올리며 이번 평창올림픽에서는 학생 180명과 경기장으로 향하기로 했다. 그리고 경기 관람에 앞서 티켓을 활용한 올림픽 응

원 이벤트를 기획한 것이다. 플로어 볼을 즐기는 학생, 영화 '국가대표2'를 보고 감동받았던 학생, 평창올림픽 다큐멘터리를 보고 응원 의지를 불태운 학생들이 모였다. 채 씨는 "2월 14일 관동하키센터에서 울릴 180명 학생들의 응원 소리를 기대해도 좋다"고 말했다.

국적을 불문하고 평창올림픽을 응원하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지난달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일대에서 열린 2018 평창국제알몸마라톤대회다. 외국인을 포함한 2000여 명의 참가자들이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내달렸다.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사람들의 색다른 응원법이다.



1924년 샤모니부터 2018년 평창까지 스물세 번 평화의 향연

선수현 | 위클리공감 기자

동계올림픽의 태동은 어언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896년 아테네에서 올림픽이 처음 시작됐지만 날씨와 경기장 건설 등이 문제가 돼 겨울철 경기 종목은 포함되지 않았다. 1908년 런던올림픽에서 겨울철 종목인 피겨스케이팅이 처음으로 채택되며 동계올림픽을 별도로 개최하는 계기가 됐다.

1924년 프랑스 샤모니에서 첫 동계올림픽이 치러졌다. 16개국 258명의 선수가 봅슬레이, 크로스컨트리 스키, 컬링, 피겨스케이팅, 아이스하키, 노르딕복합, 스키 점프, 스피드스케이팅과 바이애슬론의 전신 격인 밀리터리 패트롤 등 총 9개 종목에서 경쟁을 펼쳤다. 첫 금메달은 찰스 주트로(미국) 선수에게 돌아갔다.

경기 모습은 지금과 달랐다. 자연빙에 물을 뿌리고 얼음을 다져 경기장을 관리했고, 야외에서 대회가 열리니 선수들은 두꺼운 옷을 여러 겹씩 입고 출전했다. 양복을 입고 경기에 임하는 것도 다반사였다. 겨울철 스포츠는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당시는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면 눈과 얼음이 얼지 않아 경기가 취소되는 일도 발생했다.

지금까지 취소된 동계올림픽은 두 번이다. 1940년 일본 삿포로와 1944년 이탈리아 코르티나담페

초에서 각각 개최 예정이었던 올림픽이 모두 전쟁으로 취소됐다. 2차 세계대전이라는 불운한 역사가 낳은 결과였다. 두 번을 제외하고 1992년까지 4년을 주기로 동·하계 올림픽이 같은 해에 열리다가 1994년 릴레함메르올림픽부터 2년 단위로 동·하계 올림픽을 번갈아 개최하고 있다. 경기 종목도 루지, 쇼트트랙, 프리스타일 스키, 바이애슬론 등으로 다양해졌다.

1992년, 우리나라 첫 메달 획득

1932년 미국 레이크플래시드에서 개최된 올림픽은 세계 대공황 속에서 열려 감동과 환희를 전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금 조달에 시달렸지만 최초로 실내 경기장에서 아이스하키 경기가 열렸다. 반면 날씨가 따뜻한 탓에 4인승 봅슬레이 경기는 폐회식 후에 열리는 이벤트를 낳기도 했다.

1972년 일본 삿포로 대회는 아시아 최초의 동계올림픽이었다. 중일전쟁으로 취소됐던 삿포로동계올림픽이 32년 만에 제자리를 찾은 셈이었다. 이 대회에서 일본은 스키점프에서 금·은·동을 모두 휩쓰는 기염을 토했다.

1980년 레이크플래시드동계올림픽에서는 경이로운 기록이 탄생했다.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에릭 헤이든이 남자 500m부터 10000m까지 다섯 종목의 금메달을 석권한 것. 미국 아이스하키 대표팀은 세계 최강이던 소련을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는 2004년 영화 '미라클'의 소재로도 사용됐다. 또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인공 눈을 사용한 계기가 된 대회였다.

1984년 유고슬라비아는 동구권에서 처음으로 동계올림픽을 개최했다. 올림픽은 성공적으로 치러졌지만 당시 대회가 열린 사라예보 메인 경기장은 8년 뒤 보스니아 내전으로 폐허가 됐다. 사라예보동계올림픽의 흔적은 이제 자료로만 확인할 수 있다. 우리에게 스피드스케이팅에서 남북 대결을 보여줘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 있기도 하다.

1992년 알베르빌동계올림픽은 평화의 상징이다. 공산권이 해체되며 독립 국가들이 출전하기 시작한 올림픽이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독일도 통일된 나라로 참가했다. 이 올림픽은 우리나라에도 큰 의미가 있다. 한국 동계올림픽 사상 첫 메달 소식을 알렸기 때문이다. 스피드스케이팅에 출전한 김윤만 선수가 은메달로 짜릿함을 선사하며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했고 한국은 처음으로 10위권에 진입했다.

2010년 캐나다 밴쿠버동계올림픽의 감동은 아직도 많은 국민의 가슴속에 남아 있다. 금메달 6개, 은메달 6개, 동메달 2개로 한국은 가장 좋은 성과인 종합 순위 5위를 기록했다. 아울러 피겨스케이팅에서 세계적 스타 김연아 선수가 두각을 나타냈다. 그는 완벽한 연기를 선보였고 총점 228.56점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2위를 차지한 아사다 마오 선수와의 격차가 23.06점으로 피겨스케이팅 역사에서 한 획을 그은 대회였다. 쇼트트랙에서는 금·은·동 총 8개의 메달을 따냈다.

총 22회 개최된 동계올림픽에서 가장 많은 금메달을 차지한 나라는 독일이다. 누적 금메달 137개

인 독일(분단 시절 포함)의 뒤를 노르웨이(118개), 러시아(128개, 소련 시절 포함), 미국(97개), 캐나다(63개)가 이었다. 우리나라는 누적 금메달 26개를 획득하며 15위에 이름을 올렸다. 그 가운데 21개가 쇼트트랙에서 얻은 것이며 스피드스케이팅에서 4개, 피겨스케이팅에서 1개의 금메달을 얻었다.

평창올림픽 목표는 종합 순위 4위!

이처럼 우리나라가 당당히 다수의 메달을 차지할 수 있었던 건 끊임없이 도전한 노력의 대가이다. 우리나라는 1936년 독일 가르미슈파르텐키르헨올림픽에 처음 나갔다. 안타깝게도 당시는 일제강점기로 대한민국 출전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우리나라는 1948년 스위스 생모리츠동계올림픽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름으로 첫 공식 입성했다. 당시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3명과 임원 2명, 통역관 1명이 전부였다. 이후 6·25전쟁이 있었던 1952년 대회를 제외하고 매 대회에 참가하며 우리나라는 총 17번의 동계올림픽 참가 기록을 남겼다.

이제 전 세계의 이목이 평창으로 향하고 있다.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에서 바통을 이어받은 평창동계올림픽은 92개국, 2925명이 참가해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 우리나라는 홈그라운드인 강점을 살려 금메달 8개, 은메달 4개, 동메달 8개, 종합 순위 4위를 목표로 뛰고 있다. 2월 9일부터 25일까지 17일 동안 선수들은 15개 종목에서 102개의 금메달을 두고 화려한 경쟁을 펼친다.

지난 100여 년간 동계올림픽은 세계대전, 경제대공황, 냉전 등 세계사와 궤를 같이하며 전 세계를 화합으로 뭉치게 하는 역할을 해왔다. 평창동계올림픽은 사상 최초로 이뤄진 남북 단일팀이 참가해 또 다른 평화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평창, 새로운 올림픽 역사의 한 페이지가 시작됐다.





평창동계올림픽 교통안내



평창 마운틴 클러스터

대관령 주차장(대관령 IC)

평창군 대관령면 황계리 산116번지 일원

봉평 주차장(평창IC)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436-1번지 일원

정선 주차장(진부IC)

정선군 북평면 남평리 998-1

정선 아라리 공원 주차장(진부 IC)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112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중셔틀버스 운행

운영기간 개회식 1일 전 ~ 폐회식 1일 후

운영시간 매일 첫 경기 3시간 전 ~ 마지막 경기 종료 2시간 후



강릉 코스트 클러스터

서강릉 주차장(강릉 IC)

강릉시 화산동 89번지 일원, 강릉시 흥제동 946-1번지 일원

강릉역 주차장(강릉 IC)

강릉역

북강릉 주차장(북강릉 IC)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 810-1번지 일원

정선 아라리 공원 주차장(진부 IC)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112

※대회기간 강릉시내 전 노선 무료 운행

강릉시 2부제 의무시행

시행기간 2018년 2월 10일 ~ 2월 25일

운영시간 08:30 ~ 19:30, 지역 강릉시 동 지역 운행차량

대상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 및 승합차

운행방법 출수차량: 홀수일 / 짝수차량: 짝수일

과태료 5만원



환승주차장(무료) 자가 차량을 이용하는 관중은 환승주차장에 주차 후 셔틀버스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운영기간 개회식 1일 전 ~ 폐회식 1일 후 / 운영시간 06:00 ~ 23:00 ※심야경기는 경기 종료 2시간 후까지 연장됩니다.

Welcome to
PyeongChang 2018!

평창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2.9^(금) ~ 2.25^(일)까지

15^{개 종목} 102^{개 금메달}

92^{개 국가} 2,920^{명 선수}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한순간도 놓칠수 없는 17일 간의 축제

시설명	경기종목		02. 08(목)	02. 09(금)	02. 10(토)	02. 11(일)	02. 12(월)	02. 13(화)	02. 14(수)	02. 15(목)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	개회식 폐회식	평창 마운틴 클러스터		개회식 19:00*~22:10 * 본 행사는 20시부터 시작						
강릉 하키 센터	아이스 하키	강릉 코스타라 클러스터							남 예선 21:10~23:30 (슬로바키아 vs 러시아출신올림픽선수)	남 예선 12:10~14:30 (핀란드 vs 독일) 16:40~19:00 (노르웨이 vs 스웨덴) 21:10~23:30 (체코 vs 대한민국)
관동 하키 센터					여 예선 16:40~19:00 (일본 vs 스웨덴) 21:10~23:30 (스위스 vs 코라아)	여 예선 16:40~19:00 (핀란드 vs 미국) 21:10~23:30 (캐나다 vs 러시아출신올림픽선수)	여 예선 16:40~19:00 (스위스 vs 일본) 21:10~23:30 (미국 vs 스웨덴 vs 코라아)	여 예선 16:40~19:00 (캐나다 vs 핀란드) 21:10~23:30 (미국 vs 러시아출신올림픽선수)	여 예선 12:10~14:30 (스웨덴 vs 스위스) 16:40~19:00 (코라아 vs 일본) 남 예선 21:10~23:30 (미국 vs 슬로베니아)	여 예선 12:10~14:30 (미국 vs 캐나다) 16:40~19:00 (러시아출신올림픽선수 vs 핀란드) 남 예선 21:10~23:30 (스위스 vs 캐나다)
강릉 아이스 아레나	피겨 스케이팅			팀이벤트 : 남 싱글 쇼트 프로그램 / 페어 쇼트 프로그램 10:00~13:30		팀이벤트 : 아이스 댄스 쇼트 댄스 / 여 싱글 쇼트 프로그램 / 페어 프리 스케이팅 10:00~14:40	팀이벤트 : 남 싱글 프리 스케이팅 / 여 싱글 프리 스케이팅 / 아이스 댄스 프리 댄스 10:00~13:25		페어 쇼트 프로그램 10:00~13:45	페어 프리 스케이팅 10:30~13:55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남 1500 m 결승 여 500 m 예선 / 여 3000 m 계주 예선 19:00~21:50			여 500 m 결승 / 남 1000 m 예선 / 남 5000 m 계주 예선 19:00~21:30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	스피드 스케이팅				여 3000 m 20:00~21:50	남 5000 m 16:00~18:15	여 1500 m 21:30~23:10	남 1500 m 20:00~21:45	여 1000 m 19:00~20:30	남 10000 m 20:00~22:10
강릉 컬링 센터	컬링		믹스더블 예선 1차 09:05~11:00 2차 20:05~22:00	믹스더블 예선 3차 08:35~10:30 4차 13:35~15:30	믹스더블 예선 5차 09:05~11:00 6차 20:05~22:00	믹스더블 예선 7차 09:05~11:00 타이브레이크 20:05~22:00	믹스더블 4강 1차 09:05~11:00 4강 2차 20:05~22:00	믹스더블 3~4위전 09:05~11:00 믹스더블 결승 20:05~22:20	예선 남 1차 9:05~12:00 여 1차 14:05~17:00 남 2차 20:05~23:00	예선 여 2차 09:05~12:00 남 3차 14:05~17:00 여 3차 20:05~23:00
정선 알파인 경기장	알파인 스키 활강 슈퍼대회전 복합					남 활강 11:00~13:05		남 복합 11:30~13:10 15:00~16:25		남 슈퍼대회전 11:00~13:10
용평 알파인 경기장	알파인 스키 대회전 회전 혼성 단체전						여 대회전 10:15~11:55 13:45~15:35		여 회전 10:15~11:50 13:45~15:25	
알펜시아 스키점프 센터	스키점프 노르딕 복합 스노보드 빅에어		스키점프 노멀힐 남 개인 예선 21:30~22:40		스키점프 노멀힐 남 개인 결승 21:35~23:20		스키점프 노멀힐 여 개인 결승 21:50~23:20		노르딕 복합 남 노멀힐 개인 15:00~15:55	
알펜시아 크로스컨트리 센터	크로스컨트리 스키 노르딕 복합	평창 마운틴 클러스터			크로스컨트리 스키 여 7.5 km + 7.5km 스키애슬론 16:15~17:20	크로스컨트리 스키 남 15 km + 15 km 스키애슬론 15:15~17:10		크로스컨트리 스키 남/여 스프린트 클래식 17:30~18:45 20:00~22:00	노르딕 복합 남 개인 10 km 17:45~18:45	크로스컨트리 스키 여 10 km 프리 15:30~17:15
알펜시아 바이애슬론 센터	바이애슬론				여 7.5 km 스프린트 20:15~21:45	남 10 km 스프린트 20:15~21:55	여 추적 10 km + 남 추적 12.5 km 19:10~20:00, 21:00~21:55		여 개인 15 km 20:05~22:00	남 개인 20 km 20:00~22:00
휘닉스 스노 경기장	스노보드 슬로프스타일 평행대회전				남 슬로프스타일 예선 10:00~14:30	남 슬로프스타일 결승 / 여 슬로프스타일 예선 10:00~11:45, 13:30~15:35	여 슬로프스타일 결승 10:00~11:45			
	프리스타일 스키 모글 에어리얼			남/여 모글 예선 여 10:00~10:45 남 11:45~12:30		여 모글 예선 + 결승 19:30~20:00 21:00~22:40	남 모글 예선 + 결승 19:30~22:40			여 에어리얼 예선 20:00~21:15
	스노보드 하프파이프/크로스 프리스타일 스키 하프파이프/크로스						스노보드 여 하프파이프 예선 13:30~15:00	스노보드 여 하프파이프 결승 / 남 하프파이프 예선 10:00~11:40, 13:00~14:50	스노보드 남 하프파이프 결승 10:30~12:10	스노보드 남 스노보드 크로스 예선 + 결승 11:00~12:35, 13:30~15:00
올림픽 슬라이딩 센터	봅슬레이	평창 마운틴 클러스터								
	루지				남 싱글 1 & 2차 주행 19:10~22:20	남 싱글 3 & 4차 주행 20:00~22:45	여 싱글 1 & 2차 주행 19:50~22:20	여 싱글 3 & 4차 주행 19:30~21:55	더블 1 & 2차 주행 20:20~22:25	팀 계주 21:30~22:45
	스켈레톤									남 1 & 2차 주행 10:00~12:25

02. 16(금) 설날	02. 17(토)	02. 18(일)	02. 19(월)	02. 20(화)	02. 21(수)	02. 22(목)	02. 23(금)	02. 24(토)	02. 25(일)
									폐회식 19:00*~22:00 * 본 행사는 20시부터 시작
남 예선 12:10~14:30 (미국 vs 슬로바키아) 16:40~19:00 (러시아 vs 슬로베니아) 21:10~23:30 (핀란드 vs 노르웨이)	남 예선 12:10~14:30 (캐나다 vs 체코) 16:40~19:00 (대한민국 vs 스위스) 21:10~23:30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 vs 미국)	남 예선 12:10~14:30 (독일 vs 노르웨이) 16:40~19:00 (체코 vs 스위스) 21:10~23:30 (캐나다 vs 대한민국)	여 4강 13:10~15:30 21:10~23:30	남 플레이오프 12:10~14:30 16:40~19:00 21:10~23:30	남 8강 12:10~14:30 16:40~19:00 21:10~23:30	여 결승 13:10~16:00	남 4강 16:40~19:00 21:10~23:30	남 3~4위전 21:10~00:00	남 결승 13:10~16:00
남 예선 21:10~23:30 (스웨덴 vs 독일)	여 4강 진출전 12:10~14:30 16:40~19:00 남 예선 21:10~23:30 (슬로베니아 vs 슬로바키아)	여 순위결정전 12:10~14:30, 16:40~19:00 남 예선 21:10~23:30 (스웨덴 vs 핀란드)		여 순위결정전 12:10~14:30, 16:40~19:00 남 플레이오프 21:10~23:30	여 3~4위전 16:40~19:00 남 8강 21:10~23:30				
남 싱글 쇼트 프로그램 10:00~14:30	남 싱글 프리스케이팅 10:00~14:25		아이스댄스 쇼트댄스 10:00~13:45	아이스댄스 프리스케이팅 10:00~13:45	여 싱글 쇼트프로그램 10:00~14:30		여 싱글 프리스케이팅 10:00~14:15		갈라 09:30~12:00
	여 1500 m 결승 / 남 1000 m 결승 19:00~21:55			여 1000 m 예선 / 남 500 m 예선 / 여 3000 m 계주 결승 19:00~21:00		남 500 m 결승 / 여 1000 m 결승 / 남 5000 m 계주 결승 19:00~21:45			
여 5000 m 20:00~21:30		남 팀추월 예선 / 여 500 m 20:00~21:55	여 팀추월 예선 / 남 500 m 20:00~22:00		남/여 팀추월 결승 20:00~22:50		남 1000 m 19:00~20:35	남/여 매스스타트 20:00~22:40	
예선 남 4차 09:05~12:00 여 4차 14:05~17:00 남 5차 20:05~23:00	예선 여 5차 09:05~12:00 남 6차 14:05~17:00 여 6차 20:05~23:00	예선 남 7차 09:05~12:00 여 7차 14:05~17:00 남 8차 20:05~23:00	예선 여 8차 09:05~12:00 남 9차 14:05~17:00 여 9차 20:05~23:00	예선 남 10차 09:05~12:00 여 10차 14:05~17:00 남 11차 20:05~23:00	예선 여 11차 09:05~12:00 남 12차 14:05~17:00 여 12차 20:05~23:00	타이브레이커 09:05~12:00 남 4강 2차 20:05~23:00	남 3~4위전 15:35~18:30 여 4강 20:05~23:00	남 결승 15:35~18:55 여 3~4위전 20:05~23:00	여 결승 09:05~12:25
	여 슈퍼대회전 11:00~12:55				여 활강 11:00~12:50		여 복합 11:00~12:25 14:30~15:45		
		남 대회전 10:15~12:10 13:45~15:45				남 회전 10:15~12:10 13:45~15:40		혼성 단체전 11:00~13:00	
스키점프 라지힐 남 개인 예선 21:30~22:40	스키점프 라지힐 남 개인 결승 21:30~23:15		스노보드 여 빅에어 예선 09:30~12:25 스키점프 남 팀 결승 21:30~23:25	노르딕 복합 남 라지힐 개인 19:00~19:55	스노보드 남 빅에어 예선 09:30~12:45	노르딕 복합 남 라지힐 팀 16:30~17:10	스노보드 여 빅에어 결승 09:30~11:15	스노보드 남 빅에어 결승 10:00~11:45	
크로스컨트리 스키 남 15 km 프리 15:00~16:50	크로스컨트리 스키 여 4 x 5 km 계주 18:30~19:45	크로스컨트리 스키 남 4 x 10 km 계주 15:15~17:10		노르딕 복합 남 개인 10 km 21:45~22:45	크로스컨트리 스키 남/여 팀 스피린트 프리 17:00~18:30 19:00~20:20	노르딕 복합 남 팀 4 x 5 km 19:20~20:20		크로스컨트리 스키 남 50 km 단체출발 클래식 14:00~17:05	크로스컨트리 스키 여 30 km 단체출발 클래식 15:15~17:20
	여 단체출발 12.5 km 20:15~21:10	남 단체출발 15 km 20:15~21:15		혼성 계주 20:15~21:45		여 계주 4 x 6 km 20:15~21:45	남 계주 4 x 7.5 km 20:15~21:45		
	프리스타일 스키 여 슬로프스타일 예선 + 결승 10:00~11:40, 13:00~14:35	프리스타일 스키 남 슬로프스타일 예선 + 결승 10:00~12:05, 13:15~14:50				남/여 평행대회전 예선 12:00~13:50		남/여 평행대회전 결승 12:00~13:30	
여 에어리얼 결승 20:00~21:20	남 에어리얼 예선 20:00~21:15	남 에어리얼 결승 20:00~21:20							
스노보드 여 스노보드 크로스 예선 + 결승 10:00~11:25, 12:15~13:15			프리스타일 스키 여 하프파이프 예선 10:00~11:25	프리스타일 스키 여 하프파이프 결승 / 남 하프파이프 예선 10:30~11:55, 13:00~14:45	프리스타일 스키 남 스키 크로스 예선+결승 11:30~12:15, 13:15~14:55	프리스타일 스키 남 하프파이프 결승 11:30~13:00	프리스타일 스키 여 스키크로스 예선+결승 11:30~12:15, 13:15~14:55		
		남 2인승 1 & 2차 주행 20:05~22:45	남 2인승 3 & 4차 주행 20:15~23:00	여 1 & 2차 주행 20:50~22:45	여 3 & 4차 주행 20:40~23:00			오픈 4인승 1 & 2차 주행 09:30~12:00	오픈 4인승 3 & 4차 주행 09:30~12:30
남 3 & 4차 주행 / 여 1 & 2차 주행 09:30~12:10, 20:20~22:10	여 3 & 4차 주행 20:20~22:40								

평창·강릉·정선... 먹고 보고 즐기자

임언영 | 위클리 공감 기자

01

얼음 위에서 느끼는 짜릿한 손맛

평창송어축제

사시사철 맛볼 수 있지만 송어의 제철은 겨울이다. 송어양식장이 모여 있는 강원 평창군 미탄면 동강 자락은 우리나라 최초로 송어양식장이 들어선 곳이다. 맑고 차가운 물에서 기름지고 찰진 육질을 채워 넣은 송어를 많이 잡을 수 있다. 매년 열리는 송어축제는 올해는 2월 25일까지 진행된다. 텐트낚시, 얼음낚시, 맨손잡기, 어린이낚시 등 오대천의 투명한 얼음 위에서 송어 낚시의 짜릿한 손맛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마련되어 있다. 잡은 송어는 즉석에서 요리도 가능해, 겨울 미감 여행으로도 손색없는 평창의 대표적인 축제다. 기간은 2월 25일까지.

장소 강원 평창군 진부면 경강로 3526 **문의** 033-336-4000 평창송어축제위원회

02

커피와 재즈의 만남

강릉 재즈프레소

대한민국 커피 1세대로 불리는 바리스타들이 강릉에 정착하면서 안목해변을 따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카페거리가 조성됐다. 강릉의 커피거리를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기간 동안 다양한 축제가 펼쳐진다. 강릉 커피거리 행사장에서는 매일 공연과 커피를 주제로 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재즈 온 더 커피쇼'라는 재즈 뮤직쇼가 대표적. 2월 6일 오후에는 '100인 100味'라는 100인 바리스타 드립쇼가 펼쳐져 진풍경을 이루기도 했다. 기간은 2월 25일까지.

장소 강릉커피거리(강릉시 창해로 17) 및 도심, 명주예술마당 **문의** 033-647-6800 강릉문화재단

03

관광객을 위한 도심형 축제

2018 강릉문화올림픽 Welcome to Gangneung

2월 6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강릉 도심 곳곳에서 문화 축제가 열린다. 강릉역 웰컴센터에서는 점빈 다례 퍼포먼스와 함께 차와 커피를 제공하고, 지역 무형문화재 공연도 열려 한국의 전통문화를 느낄 수 있다. 강릉의 심장을 관통하는 월화거리에는 마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길놀이를 비롯해 다채로운 공연과 퍼레이드를 펼친다. 특별 이벤트로 강릉부사 행차, 단종국장 재현 퍼레이드, 윈터 댄싱 카니발 등 풍성한 볼거리가 마련돼 있다. 올림픽 경기를 실시간 보여주는 라이브 사이트를 운영한다. 이 밖에도 한복 입기, 가훈 쓰기, 다도, 탁본 체험 등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 행사가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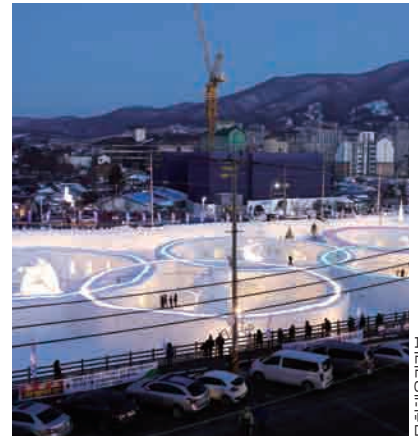
장소 강릉역, 월화거리, 오죽한옥마을, 대도호부 관아 등 **문의** 033-640-5028 강릉시청 문화올림픽과

04

초대형 눈 조각과 넓은 축제장 대관령눈꽃축제

황병산 자락 산골마을인 대관령 눈꽃마을은 설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다. 마을 안으로 산벚나무와 고로쇠나무 가로수가 뽀어나가고, 수령 250년 이상 된 피나무, 황갈나무, 느릅나무 등이 푸른 신록을 뽐내며 마을을 굽어보는 형국이다. 눈꽃축제 기간에는 마을 전체가 공간 설계에 의한 눈조각 테마파크를 조성한다. 이외에도 한국 전통놀이, 대형 눈썰매, 참여형 눈조각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어 가족 단위로 방문해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알몸 마라톤 대회, 눈마을 올림픽 등 이색 프로그램이 눈길을 끈다. 기간은 2월 7일부터 22일까지. 기간은 2월 22일까지.

장소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329-1 **문의** 033-335-3995 대관령면 축제위원회



대관령눈꽃축제

05

겨울 테마의 체험 프로그램 정선고드름축제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기간 동안 정선에서는 조양강변과 아리랑시장 장터, 공설운동장 일대에서 고드름축제가 펼쳐진다. 눈신발인 '설피'와 전통스키, 눈썰매 등을 활용한 릴레이 경주 대회가 메인 이벤트다. 스포츠를 주제로 설원 마라톤, 얼음 줄다리기, 얼음 축구대회, 고드름 연날리기, 썰매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이 밖에도 겨울 고드름 즉석 노래자랑, 정선 겨울 풍경 음악제, 정선 음식 10선 체험관, 5일장, 농특산물 등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으로 관광객을 맞고 있다. 공연, 포럼, 전시 등 한중일 3개국 문화교류 및 축제의 장도 마련했다. 기간은 2월 25일까지.

장소 강원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 1359 제2교 조양강변 **문의** 033-560-3013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정선고드름축제

06

신나고 역동적인 퍼포먼스 2018 원주 윈터댄싱카니발

대한민국 우수 축제인 '다이나믹 댄싱카니발'의 올림픽 스페셜 버전. 신나고 역동적인 댄싱카니발이 평창올림픽 기간 중 윈터댄싱카니발로 다시 한 번 찾아온다. 2월 10일 올림픽 성공기원 콘서트인 '월드 댄스 스테이지'를 시작으로 '프린지 페스티벌', '윈터댄싱카니발', '문화예술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국내 최고의 힙합, 뮤지컬, 성악, 뮤지션, 아티스트 등의 새로운 형식의 공연도 볼거리다. 하이라이트는 100개 팀으로 구성된 5000여 명이 펼치는 5분간의 짜릿한 댄스 경연이다. 2월 12일 B1A4, 에디킴 등 한류 주역과 함께하는 페스티벌, 2월 17일 유기 구라모토의 피아노 콘서트 등도 놓치기 아까운 무대다. 기간은 2월 18일까지.

장소 원주 치악예술관 등 **문의** 033-763-9401 원주문화재단 공연사업팀



원주윈터댄싱카니발



문화체육관광부

07

평화를 주제로 한 문화예술

DMZ아트페스타 2018 평화: 바람

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DMZ에서 올림픽의 상징인 평화를 주제로 전 세계인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가 열린다. 지난 1월 19일 스페셜 공연 '평화: 바람'제를 시작으로 창작공연과 전시, 퍼포먼스가 이어지고 있다. 하이라이트인 DMZ아트페스타 평화: 바람 아트 캠프는 22명의 참여형 퍼포머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2월 22일부터 24일까지 열린다. 예술인들이, 평화를 상징하는 공간에서, 평화에 대한 염원을 담아, 이에 대한 메시지를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킨 평화올림픽의 백미를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다.

장소 강원 고성군 통일전망대 및 DMZ 접경지역 등 **문의** 1330 강원도 문화올림픽 콜센터(한국관광공사)



문화체육관광부

08

메밀꽃 필무렵

효석 문화예술촌

평창군 봉평면은 이효석과 메밀꽃으로 대표된다. 우리나라 단편문학의 백미로 일컬어지는 〈메밀꽃 필 무렵〉의 작품 무대이자 이효석 작가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기 때문이다. 남안교를 건너 물레방앗간 뒷산 중턱에 자리 잡은 이효석 문화예술촌은 지난 2002년 9월 설립됐다. 문학전시실은 이효석의 생애와 문학세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성돼 있으며 재현창작실, 옛 봉평장터 모형, 어린이 영상물 등을 관람할 수 있다. 문학교실에서는 이효석의 생애 및 문학세계를 영상으로 접할 수 있어 인문학적인 여행을 즐기기에 최적이다.

장소 강원 평창군 봉평면 효석문학길 73-25 **문의** 033-330-2700



문화체육관광부

09

겨울밤 환상적인 숲속

미디어아트쇼 청산별곡

정보통신기술이 총집합하는 이번 동계올림픽의 매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체험 공간. 미디어 파사드를 활용한 아트쇼 청산별곡은 자연환경에 미디어아트 체험과 야간 경관 조명 연출을 더해 강원도의 아름다운 장소들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강릉 솔향수목원에서 열리는 이 행사는 솔솔잔디광장, 하늘정원, 파노라마 미디어아트 하산로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2.6km의 산책로를 걸으며 빛의 향연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관람 구역은 자유관람구간, 가이드 인솔구간으로 구분되며, 가이드 인솔구간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사전예매 후 관람할 수 있다. 기간은 2월 25일까지.

장소 강원 강릉시 구정면 수목원길 156 **문의** 1330 강원도 문화올림픽 콜센터(한국관광공사)



10

동강을 한눈에 스카이워크&짚와이어

강원 정선군 병방치길에 있는 스카이워크 전망대는 국내 최초 3D 전망대로 한반도 모양의 밤섬 돌레를 동강 물줄기가 180도로 감싸 안고 흐르는 비경을 자랑한다. 한국의 그랜드 캐니언이라 불리는 이곳은 해발 583m의 절벽 끝에 길이 11m의 U자형 구조물을 벼랑 밖으로 돌출시키고 바닥은 투명한 강화유리로 마감해 절벽 끝에서 구름을 걷는 짜릿함을 제공한다. 전망대 이용자들은 강화유리 보호를 위한 덧신을 신고 경치를 감상해야 하며, 당일 기상 여건에 따라 관람이 다소 제한될 수 있다. 인근에서는 325.5m의 병방산 절벽에서 동강 생태체험 학습장까지 경사도 30%, 최고 속도 120Km/h로 설계된 짚와이어를 경험할 수도 있다. 레일바이크와는 또 다른 흥미를 갖춘 정선의 새로운 레포츠로 익사이팅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체험지다.

장소 강원 정선군 정선읍 병방치길 225 **문의** 033-563-4100


 문화
 사진

11

탄광에서 캐내는 예술여행 삼탄아트마인

우리나라 무연탄 생산 중심지였던 함백산 자락에 위치한 문화예술 공간. 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화제를 모으며 한류 관광지로 부상한 곳이기도 하다. '삼탄'은 우리나라 대표 탄광 중 하나였던 '삼척탄좌'에서, '마인'은 탄광의 영어식 표기 '콜 마인(coal mine)'에서 따와 합성어를 탄생시켰다. 실제 폐광을 그대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곳이다. '아티스트 인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통해 선발된 작가들의 예술작품이 전시되어 있고, 기획전시실, 세계 미술품 장소, 동굴 와이너리, 원시미술박물관 등 즐길 거리가 많다. 채탄과 채굴에 사용하던 광차를 포함한 옛 모습 그대로 전시된 기계들도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볼거리다.

장소 강원 정선군 고한읍 함백산로 1445-44 **문의** 033-591-3001


 문화
 사진

12

콧등치기, 올챙이국수부터 각종 산나물까지 정선5일장

정선아리랑시장과 그 일대에서 열리는 정선5일장은 국내 최대 규모의 재래시장이다. 1966년부터 이어온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 달마다 숫자 2와 7이 들어가는 날에 장이 선다. 장이 열리는 날에는 주차장 일대부터 상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흥겨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시장 입구에서는 작은 공연장도 운영되는, 공연장을 둘러싸고 메밀전과 막걸리 등을 파는 식당들이 줄지어 들어서기도 한다. 정선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황기, 곤드레, 취나물을 비롯한 각종 산나물과 약초, 감자, 더덕, 헛 등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이 재료들로 만든 곤드레밥, 콧등치기, 올챙이국수, 메밀국죽, 황기죽발, 황기막국수 등 정선 특유의 먹을거리도 푸짐하고 저렴하게 즐길 수 있다. 이곳에서는 옥수수막걸리도 별미다. 수수부꾸미, 메밀전, 감자떡 등 토속 먹을거리로 시골 장터의 소박한 맛을 느낄 수 있다.

장소 강원 정선군 정선읍 봉양7길 39 **문의** 033-563-6200


 문화
 사진

문화행사 (날마다 문화가 있고 축제가 있는 문화올림픽)

평창 올림픽 플라자



강릉 올림픽 파크

- ① 강릉 아이스 아레나
 - ②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
 - ③ 강릉 하키 센터
 - ④ 강릉 컬링 센터
- A** 파트너 쇼케이싱(홍보관) 구역
B 오픈 스테이지 구역
C 라이브 사이트
D 강릉 아트 센터



- 게이트**
도보동선
관중 / 관중석
티켓 판매소
라이브 사이트
관중 안내 센터
유실물 센터
유모차 & 휠체어 보관소
성화대
관중 의무실
수유실
관중 휴게실
매점
관중 식당
2018 평창 공식 상품점 (평창 슈퍼 스토어)
화장실
투어서비스

구분	장소	기간	주요 내용
평창 올림픽 플라자	문화IC관	2.9~2.25	비디오아트의 거장 백남준 작가의 작품 전시와 이중섭, 김환기, 이우환 등 대한민국의 근·현대 미술작품 전시(상시)
	메달 플라자	2.10~2.25	10:00 ~ 16:00 · 대형스크린 경기 생중계 및 응원전 · 뮤지컬, 팝페라공연, 패션쇼 등 무대 공연(매일 2회)
			18:00 ~ 22:00 · 메달 시상식 전후로 댄스팀, 무용단, 합창단 공연 등 · K-POP 스타들의 헤드라이너 공연 불협 프리쇼 · 불꽃 쇼(매일 저녁)
	라이브 파빌리온	2.10~2.24	· K-POP 3D 홀로그램 콘서트(1일 10회) · 동계종목 VR체험 및 미디어아트 전시(상시)
강릉 올림픽 파크	오픈스테이지	2.9~2.25	· 취타대와 전문 공연단이 함께하는 퍼레이드(매일 1회) · 한복 플래시몹(총 4회), 스트리트 댄스, 버스킹 등 거리예술 공연(매일 2회)
	강릉아트센터	1~3월	· 발레, 뮤지컬, 오케스트라 등 국공립 및 시도립 예술단체 대표 공연(매일 3회)
	라이브사이트	2.8~2.25	· 대형 스크린 경기 생중계 및 응원전, 무대공연(매일 4~6회) · 아이스링크를 활용한 동계종목 체험(상시) · 전국 대표 문화 전시, 파트너 쇼케이스(상시)

설날 사용설명서

친밀성이란 무엇일까. ‘나’라는 존재의 주위를 둘러싼 관계의 힘, 그 힘을 통해 내가 얼마나 힘을 얻는가에 따라 친밀성의 강도는 달라질 것이다. 현대인이 친밀성을 느끼는 사람들은 직장이나 학교처럼 조직생활을 함께하는 사람들일 경우가 많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더 깊은 친밀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은 옛사람이나 현대인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농경사회에서 ‘친척(親戚)’은 그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친한 사람들이었다. 마을 자체가 비슷한 성씨들로 이뤄져 있는 경우가 많았고, 설날이나 추석은 평소에 부족했던 영양분을 한꺼번에 보충할 수 있는 잔칫날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친척은 그야말로 친밀성은 부족한데 의무감만 강한 관계가 돼버린 것 같다. 또 명절 때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주는 사람도 친척일 경우가 많다. 결혼은 언제 하느냐, 취직은 했느냐, 대학은 어디로 정했느냐 식의 뻔한 질문들은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들이 던지는 마음의 독화살’이 돼버린다.

어떻게 하면 저마다 행복을 최대한 누릴 수 있는 보람찬 설날을 보낼 수 있을까.まずは 조금씩 서로의 오래된 습관을 양보하는 것이다. 남녀노소 모두 조금씩 돕는 더 간소하고 소박한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것부터가 새로운 명절의 시작이 될 수 있다. 과감하게 함께 여행을 떠나는 집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대가족이 여행을 떠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명절=여행’의 등식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우리 집 경우는 차례 음식을 대폭 줄이고, 전이나 부침개 종류는 우리가 시장에서 사가기 시작하면서 여성의 일이 많이 줄어들었다. 모두가 ‘다음 세대엔 차례를 지내지 않겠다’는 것에 동의하는 눈치고, 부모님도 기력이 쇠하면서 ‘명절=차례상 차리기’가 아니라 ‘명절=오랜만에 다 모이는 행복한 가족 모임’으로 바꾸려는 의지가 보이기 시작했다. 우리 가족도 언젠가 모두 함께 설날에 훌쩍, 과감하게 해외여행을 떠나는 꿈을 꾸고 있다.

설날을 조금 더 특별하게 보내는 최고의 방법은 ‘혼자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명절 내내 가족과 붙어 있지는 않으니 나머지 시간을 텔레비전 보거나 낮잠으로 허비하기보다는 ‘혼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좋다. 업무가 잔뜩 밀려 있을 때는 미처 꿈도 꾸지 못한 것들, 예를 들어 미술관에 그림을 감상하러 간다든지, 콘서트홀에 가서 좋아하는 음악에 푹 빠진다든지, 일 때문이 아니라 정말 내가 꼭 쓰고 싶은 글을 쓰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다. 아예 전화를 꺼놓고 긴 책을 하루 종일 읽어보는 독서삼매경의 호사를 누리보는 것도 좋다.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을 누리게 되면 우리가 명절이나 휴일에 더 커다란 결핍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 설날이면 더 풍요롭고 더 희망차고 더 눈부신 새해의 시작을 꿈꾸는 우리 마음 때문에 사실은 어제와 똑같고 날짜만 바뀌었을 뿐인 설날이 더 깊은 정서적 결핍을 느끼게 한다. 가족과 친척들의 ‘결혼해라’, ‘취직해라’는 아우성 때문에 짜증나고 지치더라도 조금은 이해해주자. 아직 우리에게 ‘지나친 관심’을 보여주는 가족 때문에 외로울 겨를도 없는 우리 자신의 ‘봄비는 일상’에서 축복과 감사를 느껴보자. 그리고 나보다 더 외로운 이웃, 나보다 더 춥고 아픈 사람들의 설날에 조금이라도 온기를 더할 수 있는 작지만 소중한 발걸음을 시작해보자.





[소상공인 5대 안심 지원]을 포함한 76가지 보완대책으로 영세업체를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5대 안심 지원

01

일자리안정자금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을
사업주에 지급

02

사회보험료 지원

신규·기존 가입자
보험료의 90%~40%
지원

03

카드수수료 인하

우대수수료율 적용 확대
(0.8%~1.3%)

04

음식점 부가세 감면

재료 구입비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

05

상가 임대료 경감

상한 인하(9%→5%),
환산보증금 상향



대한민국정부

초과근로수당 포함 월급 210만 원 미만 직원도 대상

일자리 안정자금, 비과세 혜택 늘려 사각지대 줄인다

선수현 | 위클리 공감 기자

1인 가구 실태생계비는 175만 원. 혼자 사는 근로자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데 평균 175만 원이 든다는 뜻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2015년을 기준으로 발행한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분석 연구 용역'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2018년 최저임금 근로자의 월급은 157만 3370원이다. 하루 8시간씩 부지런히 일해도 근로자의 23.5%가 실태생계비보다 적은 급여로 살아가고 있다. 저임금 근로자를 위해 최저임금 보장이 시행됐다. 동시에 정부는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더는 연착륙 정책도 함께 가동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지급한다. 30인 미만 월급여 190만 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면 사업주에게 월 13만 원을 지급한다.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신청 가능하다. 단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5명 미만 농림업 종사자, 신규 취업한 만 65세 이상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일용·단시간 근로자는 근무일수와 시간에 비례해 차등 지급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도 확대됐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의 비과세 혜택을 기존 제조업 생산직에서 식당 종업원, 편의점 판매원, 주유소 주유원, 경비·청소원,

농림어업 노무자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가령 식당 종업원이 기본급 190만 원에 초과근로수당을 20만 원 받아 월급이 210만 원 미만이 돼도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자가 된다. 지금까지는 수당을 포함해 월 급여 190만 원 미만이어야 했지만 월 최대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됐다.

아울러 보다 많은 소상공인·영세사업주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신규 채용이나 정규직 전환을 시행하는 기업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후 기준 인원인 30명을 넘는 기업은 29명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다. 생업이 바빠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기 어려운 영세소상공인의 편의를 위해 무료 신청 대행기관을 독려하는 인센티브를 상향 조정했다.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2018년 신규 가입자는 모두 대상에 포함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소급신청 한 경우에 건강보험료도 동일하게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안정자금 13만 원에 보험 지원까지

정부는 제도개선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의 사각지대가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2월 7일 기준 11만 6432개 사업장, 28만 3990명의 노

동자가 신청했다.

다수의 사업주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에 앞서 4대 보험 가입을 놓고 고민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13만 원을 지원받기 위해 매월 부담하는 비용이 적지 않다고 토로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다. 10인 미만 사업체에서 월 190만 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와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신규 가입자는 80~90%, 기존 가입자는 40%를 지원한다. 여기에 건강보험도 50%가량 지원한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신고 기간도 창업 후 1년에서 5년 내로 연장됐다.

영세소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도 덜게 됐다.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은 0.8%, 3억~5억 원은 1.3%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오는 7월부터 밴(VAN) 수수료 부과방식도 개선한다. 밴 수수료는 카드 결제 시 사용조회에 부과되는 수수료 원가 항목 중 하나다. 건당 일정 금액을 차감하던 정책제 차감방식을 비율을 적용하는 정률제로 바꾼다. 그동안 1000원씩 10건을 결제하는 수수료가 1만 원짜리 거래 1건보다 많았지만 정률제 도입으로 동일한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빈번한 소액결제 수수료율이 높고 최저임금 보장 부담이 큰 소액결제 업종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 준 보너스는 직원들 몫이죠”

오픈케이지 장지혜 대표

“보너스 탄 기분이에요.”

고용주 입장에서 직원에게 급여를 주고 고용보험에 가입해주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예상치 못한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더해지니 마치 보너스 같단다. 장지혜 대표는 2014년 인터넷 쇼핑물 오픈케이지를 열었다. 오픈케이지는 이미 레드오션인 인터넷 쇼핑물 시장에서도 해마다 매출이 10배, 20배씩 뛰고 있다. 독특하면서도 질리지 않는 디자인이 젊은 여성 고객층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다. 오픈케이지의 의상은 50% 이상이 자체 디자인 제

품이다. 장 대표는 향후 80%까지 자체 디자인 비율을 높여가며 하나의 브랜드로 키울 계획을 갖고 있다.

변화에 민감하고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인터넷 쇼핑물 특성상 파트타임, 프리랜서 채용이 흔하다. 현금으로 일급을 지급하는 것이 이 업계에서는 늘 있어온 일이지만 장 대표의 원칙에는 위배된다. 직원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해줘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는 “채용 면접 시 지원자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4대 보험 가입 여부더

라고요. 프리랜서 고용이 당연시되면서도 불안감을 갖고 있는 지원자가 많다는 걸 알았어요”라고 했다. 단기적으로 파트타임, 프리랜서를 고용하면 기업 부담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장기간 안정적인 경영 구조로 자리 잡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게 성장에 더욱 이득이었다.

회사가 성장할수록 직원도 점점 늘어났다. 오픈케이지는 웹디자이너, MD, 마케팅, 의상 검수, 택배 담당 직원까지 모두 17명의 인력이 상주하고 있다. 장 대표는 뉴스를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알았고 가입 절차를 밟았다. 17명의 직원 중 급여 조건에 해당하는 직원은 모두 9명이었다. 9명의 직원 명의로 오픈케이지는 1인당 13만원의 지원을 받게 됐다.

아직 장 대표가 직원들에게 말하지 않은 한 가지. 9명의 직원들은 다음 달부터 급여 명세서에 일자리 안정자금 항목으로 13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임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에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금액이지만 장 대표는 이 금액을 다시 직원들에게 나눠줄 생각이기 때문이다. 장지혜 대표는 회사가 성장하는 만큼 직원들을 대우해주면 다시 회사가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룬다고 했다.

“사업 초기부터 일한 직원들이 지금도 함께하고 있어요. 회사를 키워 나가려면 직원들의 장기근속이 중요하더라고요. 안정자금은 정부가 기업 성장을 위해 주는 상 같은 거니까 직원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정부에서 주는 보너스는 열심히 일한 직원들 몫인 거죠. 그러면 직원들도 더 열심히 일해줄 거라 믿어요.”



오픈케이지 장지혜 대표(왼쪽에서 다섯 번째)가 직원들과 자유롭게 회의하는 모습 | 오픈케이지

“바른 마음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했어요”

바른반찬 우은정 대표

바른 먹거리. 주부들의 공통된 관심사다. 반찬가게를 운영하는 우은정 바른반찬 대표 역시 한 명의 주부 입장에서 다른 주부들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그는 “바른’을 내걸고 영업하기 쉽지 않은데 손님들이 이 부분을 믿고 좋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바른’이란 상호를 책임지기 위해 재료를 엄선하고 위생을 철저히 한다.

우 대표의 하루는 아침 8시에 시작한다. 70여 가지의 반찬을 준비하기 위해 식재료를 씻고 다듬는다. 볶고 끓이고 찌고 나면 재료는 어느새 손님들의 밥상에 오를

수 있도록 맛있는 찬거리로 변한다. 주방의 마무리까지 마치는 데 꼬박 8시간이 걸린다.

반찬가게는 계절과 날씨에 민감하다. 요즘같이 추울 때면 동태찌개, 청국장, 콩비지가 인기다. 바른반찬이 위치한 세종시는 평균 연령 36.8세로 꽤 젊은 도시다. 가게를 찾는 손님도 주로 젊은 세대다. 1인 가구나 맞벌이 부부가 많다. 빠른 시간에 완전한 음식을 식탁에 올릴 수 있어서 반찬가게를 즐겨 찾는다. 가게 경제 측면에서도 일일이 재료를 사서 만드는 것보다

한두 번 먹을 수 있는 양을 사는 것이 더 합리적인 이유도 있다.

15평(49.6㎡) 남짓 가게에는 두 명의 직원이 함께 일한다. 하루의 절반 이상을 함께하는 직원들에게는 180만 원 상당의 월급이 지급된다. 오후 5시 직원들이 퇴근하면 가게는 오롯이 우 대표의 몫이다. 저녁 찬거리를 구매하러 오는 손님들에게 혼자 판매에 나선다.

지난해부터 직원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주고 있었지만 경기가 어려운 탓에 운영이 빠듯하다. 임대료, 인건비, 공과금 등을 제하고 나면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다. 자신의 월급은 못 챙겨도 직원들 월급은 고정적으로 나가야 하는 사업주의 마음은 어렵기만 하다. 거기에 직원이 종종 바뀐다는 점도 고민이다.

바른반찬은 지난 1월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했다. 우 대표는 직원들의 고용보험을 가입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을 찾았다가 우연히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알게 됐다. 월 13만 원씩 지원금을 받을 수 있더니 알아보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현장에서 확인해보니 조건이 맞았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월급여 190만 원 미만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가입을 망설이지 않았다. 절차도 어렵지 않았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몇 가지 서류를 제출하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완료됐다.

“직원이 바뀔 때마다 매번 다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래도 정부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사업주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으니 차츰 보완이 되리라 믿어요. 4대 보험이 가입돼 있는 사업장은 왜 신청을 하지 않나요? 신청 안 하면 손해 아닌가요?” 



바른 마음으로 반찬을 만드는 우은정 대표 | C영상미디어

3대 비급여 해소, 선택진료 폐지, 2~3인 병실 보험 적용

60세 이상 치매 의심환자 MRI 검사도 건강보험 혜택

이정현 | 위클리 공감 기자



2017년 8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강화정책 발표행사 | 뉴스스

서울 성북구 한씨네는 3대가 함께 살고 있다. 70세 할아버지는 수술을 앞두고 병원에 10일 정도 입원해야 하는 상황이다. 인근 지역 종합병원에 입원한 그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4인실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2인실을 이용하면서 수술비 외에 입원료 100만 원을 부담하게 됐다. 40대 아들은 현재 혈종 제거 수술 후 8일간 입원진료를 받고 있다. 수술비로 520만 원(선택진료비 173만 원 포함)과 입원료 137만 원

(선택진료비 18만 원 포함) 총 657만 원 중 214만 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10대 손녀는 급성중수염(급성맹장염)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이렇듯 다양한 질병으로 병원비를 걱정하는 가정을 위해 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2018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정책에 따르면, 할아버지는 2인실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기존 10일 기준 평균 100만 원을 부담하던 것에서 50만~60만 원 정도로 입원비를 줄일 수 있게 됐다. 나아가 노인 임플란트도 본인 부담이 현행 50%에서 30%로 경감된다. 아들의 경우 선택진료 폐지에 따라 선택진료비 191만 원을 제외한 23만 원 정도의 금액만 부담하면 돼 약 89% 본인부담 감소 효과가 있다. 손녀의 경우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 의료비는 나이에 따라 10~20% 적용하던 것을 일괄적으로 5%로 낮춤으로써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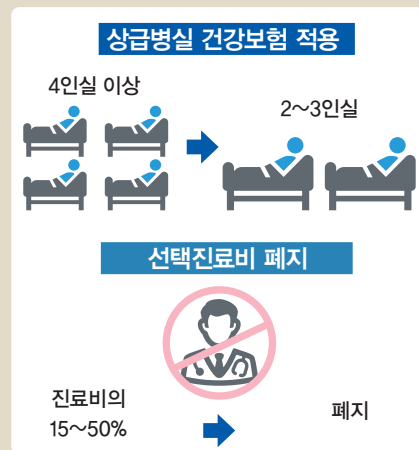
이렇듯 정부는 2018년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국민소득 3만 달러 국가에 걸맞은 선진형 복지국가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치매노인 보호 등 평범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펴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18일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주제로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올해 추진할 주요 3대 정책 목표로 더 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 마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의 포용 확대를 제시했다.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삶

보건복지부는 국민 부담이 큰 비급여를 해소하고, 환자의 본인부담을 덜어주는 등 실질적인 의료비 경감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계획을 추진하고, 3대 비급여(특진·특실·간병)를 해소한다. 선택진료를 폐지하고 2~3인실 건강보험 역시 적용한다. 정부는 환자 중심, 의료질 향상 등 보상 원칙을 마련하고 수술·처치 등 저평가 분야와 입원료, 의료질평가지원금 등을



통해 진료에 적절하게 보상해주는 방법을 마련한다.

소득 하위 50% 대상으로 본인부담 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하고 질환 구분 없이 재난적 의료비의 경우 지원한다.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을 현재 50%에서 30%로 인하하고 노인의뢰정액제 정률구간을 개선해 진료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 삶

정부는 치매를 국가가 관리한다고 선언했다. 그 결과 올해부터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의 경우 MRI(자기공명영상) 검사비용 부담이 완화돼 15만 원이면 뇌 MRI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및 '치매국가책임제' 후속조치로, 올해 1월 1일부터 60세 이상 치매 의심환자(경도인지장애)에 대한 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지금까지 치매 MRI 검사는 경증이나 중등도 치매로 진단되는 경우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치매 의심단계에서 MRI 검사를 받았을 때는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했다. 치매 진단은 환자 문진, 일상생활 수행능력 평가, 신경인지기능검사 등을 통해 주로 이뤄진다. 그런데 치매 초기 또는 의심단계에서 원인을 감별하고 치료 방침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MRI 검사가 필요하다. 이에 60세 이상이면 신경인지기능검사를 통해 치매 진단계로 의심되는 환자(경도인지장애)가 촬영하는

MRI 검사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올해 9월부터 소득 하위 90% 이하 가구의 0~5세 아동 약 238만 명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10월에는 60개월 이상의 영유아(어린이집과 유치원)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을 확대·시행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학대 예방·조기 발견 및 조사 기능 강화·피해 지원 등 종합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위기아동 조기 발견 시스템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생활 보장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올해는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앨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탈락자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해 연간 10만 명을 추가로 보호하기로 했다.

노인 빈곤 완화 차원에서 9월에는 기초연금을 25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기로 했다. 10월에는 적정 소득 보장과 세대 간 형평성, 재정 안전성 등을 담은 중장기 국민연금 개선방안(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연금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출산과 양육이 존중받는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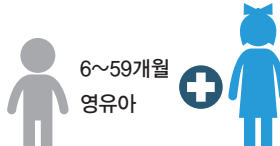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신축 외 다양한 방식을 도입해 조기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아동수당 도입



0~5세 아동에
매월 10만원 지급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 확대



6~59개월
영유아

12세 이하
초등학생

민간어린이집의 장기 입차 방식을 신규로 도입하고 민간 매입 활성화, 공동주택 리모델링 등 확충 방식을 다양화한다.

12월부터는 500세대 이상의 신축 아파트 단지나 공공임대주택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어린이집 규모와 유형, 아동 특성, 이용 시간 등을 고려해 적정 보육에 필요한 표준보육비용을 산정하고 내년에 이를 보육료 지원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올 3월부터 교육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가 협력해 초등학교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를 앞두고 장애계·전문가 단체와 논의를 거쳐 6월 중으로 일상생활수행능력 등을 고려한 종합장애판정도구를 개발할 예정이다. 5월부터는 장애인 건강관리 의사를 도입해 합병증과 만성질환을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어린이 재활병원 확대 설치, 장애아동 주치의 도입 등으로 장애아동이 가까운 곳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게 지원하기로 했다. ㉔

치매 본인부담금 경감

	현행	변경
중위소득 50% 이하	50% 경감	60% 경감
중위소득 51~100%	-	40% 경감

새희망홀씨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안전망 대출 등 보완책 활용하세요

금리 부담 줄여주는 슬기로운 금융생활

조동진 | 위클리 공감 기자

2016년 6월부터 1.25%를 유지하던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난해 11월 1.5%로 인상됐다. 향후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1월 12일 금융감독원이 '금융 꿀팁, 금리 부담 완화 등을 위한 금융정보' 자료를 발표했다.

01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2월 8일부터 고금리 대출 이용 시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된다.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돼온 연 27.9%의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3.9%p 낮아졌다. 이 금리는 신규 체결이나 갱신·연장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단

2월 8일 이전 체결된 고금리 대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미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과 3~5년의 장기대출 계약을 체결했다면 기존 계약을 상환하고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밝혔다.

02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금리인하요구권도 적극 활용한다.

평소에도 신용등급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을 일정 기간·일정 금액 이상 사용하게 되면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다. 또 대출금을 연체하는 것은 신용

등급에 치명적이다. 따라서 원리금상환액이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대출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 어쩔 수 없이 대출금을 연체할 경우 최대한 빨리 상환하고, 다수의 연체 건이 발생하면 오래된 대출부터 먼저 상환하는 것이 좋다.

각 신용평가사의 누리집에서 4개월에 한 번씩 무료로 신용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의 신용등급과 부채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자신의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경우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고, 여신전문금융사, 보험사 등에 대출금 이자를 인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 제도가 있다. 따라서 대출을 받은 후 승진 등 직위가 올라갔거나 급여나 연소득이 늘었을 경우, 또 신용등급이 상승했다면 금리인하를 요구해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높은 카드론은 조건이 충족될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03 새희망홀씨대출은 성실 상환자에게 금리 감면 혜택이 있으니 적극 활용해보자.

은행권의 서민 맞춤형 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대출의 경우 일정 기간 이상 성실하



정부는 지난 1월 11일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한시중은행 대출 상담 창구 | 뉴스시스

계 대출금을 상환한 고객에게 대출기간 중 추가로 금리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또 대출 상환 만기 전이라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고, 기초생활수급권자와 한부모가정, 1가구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과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도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 성실 상환자의 경우 추가로 500만 원 내에서 긴급생계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사회망홀씨대출과 햇살론 등 서민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 받은 후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고 있거나 대출 원금의 50% 이상을 상환한 경우 신용평가사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04 금리가 오를 때는 대출 목적과 기간 등에 따라 적합한 금리를 선택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지속적인 금리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간 이용할 경우 고정금리대출이 유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금리가 오를 때일지라도 대출기간 및 자금 사용 목적에 따라 변동금리가 유리할 수도 있으므로 거래은행에 자세히 확인한 후 금리 조건을 선택한다. 이미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금리인상폭과 금리 변동주기, 대출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고정금리로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고정금리로 전환할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여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같은 은행에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대출로 전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안전망 대출이란?

정부는 지난 1월 11일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월 8일부터 신규 정책 서민금융상품인 '안전망 대출'을 공급하고 있다.

지원요건 및 대상 2월 8일 전 연 24% 초과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다가 만기가 3개월 이내로 임박한 저신용(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저소득자(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대출한도 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한도에서 기존의 연 24% 초과 고금리 대출 채무를 위한 대환 **상환방법** 최대 10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

금리 보증료 포함 12~24%(성실 상환자에 대해 6개월마다 금리인하 혜택 부여)

취급기관 2월 8일부터 전국 15개 은행(우리은행은 3월, 씨티은행은 5월부터 가능)

안전망 대출은 서민금융진흥원(국민행복기금)의 100% 보증을 통해 운영된다.

05 예·적금의 만기가 짧은 금융상품 조건과 우대금리 등을 확인한다.

일반적으로 예·적금은 가입할 때의 금리가 만기 때까지 적용되는데,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높다. 따라서 금리가 오를 때는 예·적금 가입 시 추가 금리상승으로 인한 기회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만기를 짧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은행들이 예금이자자가 시중 금리 상황에 따라 바뀌는 '회전식 정기예금' 상품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은 이들 회전식 정기예금에 대해 최초 가입 금리가 통상의 예·적금 이자보다 낮아 급격한 금리인상이 아닌 한 오히려 이득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06 보험계약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니 여유자금이 있으면 만기 전이라도 상환하는 것이 좋다.

보험의 경우 자금이 급히 필요해 계약을 해지하면 사고를 당해도 보장을 받을 수

없고, 환급금 역시 납입보험료보다 적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향후에 같은 조건의 보험 가입 역시 쉽지 않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이유로 단기간 사 용할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보험을 해지하기보다는 보험계약대출을 통해 계약은 유지하면서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을 우선 고려하는 게 좋다고 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대출을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의 일정 범위(50~95%)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서비스로 소개했다. 특히 신용등급초회 등 대출심사 절차가 없고, 대출이 연체돼도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수시로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낮은 신용도로 인해 일반 금융회사 대출에 계약이 있거나 자금 흐름이 안정적이지 않은 경우 유용하다고 밝혔다. 보험계약대출은 신청 전에 가입한 상품별로 자신에게 적용되는 대출금리를 확인하고, 은행 등의 대출금리와 비교해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금융감독원의 설명이다. ㉔

정초 십이지일

정훈이

농경사회인 조선 시대 설 명절 기간은
정월 초하루부터 대보름까지다.



많이 알려진 것은 생략하고 보름 동안의
세시풍속을 살펴보자.



선달그믐날 밤에는 잠을 자지 않았다.



밤을 새우고 설날 아침 나이를 한 살 먹기
위해 떡국을 먹었다.



설날 밤에는 '야광귀'가 와서 신발을
신어보고 맞으면 신고 가기 때문에



신발을 숨기거나 뒤집어놓고 잔다.
지붕에 체나 키도 매달아둔다.



'정초 십이지일'이라 하여 열두 동물에
해당하는 날마다 풍속이 있었다.



첫 쥐날(상자일)에 일을 하면 쥐가 곡식을
축낸다 하여 임금부터 노비까지 모두 논다.
아낙네들은 길쌈도 바느질도 하지 않는다.



첫 소날(상축일)은 소에게 일을 시키면
안 되는 날이다. 연장도 만지면 안 되고
도마질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논다.



첫 호랑이날(상인일) 일하면 호랑이가
잡아간다 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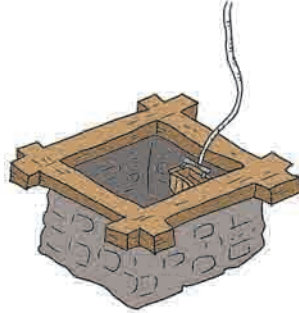
그날은 온 가족이 외출도 삼간다.
집 안에서 논다.



첫 토끼날(상묘일) 대문은 남자가 열어야 한다. 토끼는 방정맞고 경망한 짐승이어서 이날은 자중하고 언행을 삼간다.



첫 용날(상진일)은 새벽에 용이 우물에 알을 풀어놓고 가기 때문에



새벽에 우물물을 길어와서 밥을 지으면 풍년이 든다. '용알뜨기'라고 한다.



첫 말날(상오일)은 말에게 제사를 지내고 위로하는 날이다. 경상도와 제주도에선 좋은 날이라고 장을 담근다.



첫 양날(상미일) 전라도에서는 배를 띄우지 않는다. 제주도에선 이날 약효가 없다 하여 약을 먹지 않는다.



첫 원숭이날(상신일)은 귀신을 쫓기 위해 남자가 일찍 일어나서 부엌과 마당의 네 귀퉁이를 쓴다.



첫 닭날(상유일)에 바느질이나 길쌈을 하면 손이 닭발처럼 흥해진다 하여 여자들이 일하지 않는 날이다.



첫 개날(상술일)에 일하면 개가 뒷발을 망친다 하여 일을 안 한다. 그래서 논다.



첫 돼지날(상해일)은 왕겨·콩깍지·팔로 문지르면 피부가 좋아지는 날이다. 바느질도 하면 안 된다.



정월 열나흘날은 부잣집 부엌의 흙을 훑쳐다가 부뚜막에 바르는 날이다.



정월 대보름을 하이라이트로 보름간의 설 명절은 모두 끝이 난다.



대보름날 저녁, 긴 연휴가 끝나고 우울한 사람 많았을 것 같다.





명절 앞둔 수원 영동시장

“기존·청년상인 다같이 신바람 나는 전통시장 꿈꿔요”

설 명절을 앞둔 이맘때면 전통시장은 분주해진다. 제수와 선물을 준비하러 시장을 찾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한산했던 골목을 가득 채운다. 그중에서도 조금 특별한 곳이 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수원 영동시장이다.

영동시장은 지난해 청년몰이 들어선 뒤 기존 상인과 청년 상인이 함께하고 있다. 유난히 추운 날씨 탓에 시장 분위기가 다소 침체됐지만 설을 기점으로 따뜻한 바람을 맞을 준비에 한창이다.

이근하 | 위클리 공감 기자

“기존 상인과 청년상인의 조화, 영동시장의 강점입니다”

저와 같이 자극적인 음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건강하면서도 맛있는 간식을 만들고 있어요. 매장을 운영하기 전에는 회사원이었어요. 그때는 큰 울타리 안에서 제 업무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하나부터 열까지 스스로 해야 하니 힘든 순간이 많아요. 그렇지만 거기서 비롯되는 즐거움도 커요. 청년상인들로부터 얻는 번뜩이는 아이디어, 기존 상인들로부터 얻는 조언들이 조화를 이룰 때도 있습니다. 이곳의 강점이라고 자부할 수 있어요. 이번 설에는 모든 상점이 장사가 잘됐으면 좋겠어요. 전체 분위기라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사업이 안정되면 가맹점을 모집하는 게 희망사항이자 목표입니다.

송혜령(37, 간식여왕)



“더욱 면밀한 청년상인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대학 시절 취미로 해오던 가죽공예를 업으로 삼게 됐습니다. 공방이 전통시장 안에 위치해 있다 보니 손님 연령대가 다양해요. 어르신들도 있고 젊은 커플이나 학생들도 많습니니다. 브랜드 정체성 확립과 인지도 제고 조건으로는 최고라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청년몰에서는 초기 정착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점도 만족스럽고요. 그렇다고 아쉬운 점이 없는 건 아니죠. 2층의 존재를 몰라서 1층 시장만 둘러보고 가는 분들이 상당수입니다. 구조적인 부분에서 보완돼야 할 점이라고 봐요. 조금 더 바란다면 '세밀한 지원책'이라고 할까요. 정부 입장에서 챙겨할 곳이 많겠지만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보다 더 들여다보셨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유서영(23, 메다)





“전통시장 편견, 직접 와서 깨트리길”

아동 한복집은 다른 점포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설 대목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많이 줄었다고 할 수 있지만, 설을 앞두고 아동 한복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은 여전히 꽤 있어요. 이곳에서 26년째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변 환경이 꾸준히 발전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와요. 하지만 아직은 전통시장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중장년층은 물론이고 젊은 친구들도 시장을 직접 방문해보길 권해요. 전통시장만의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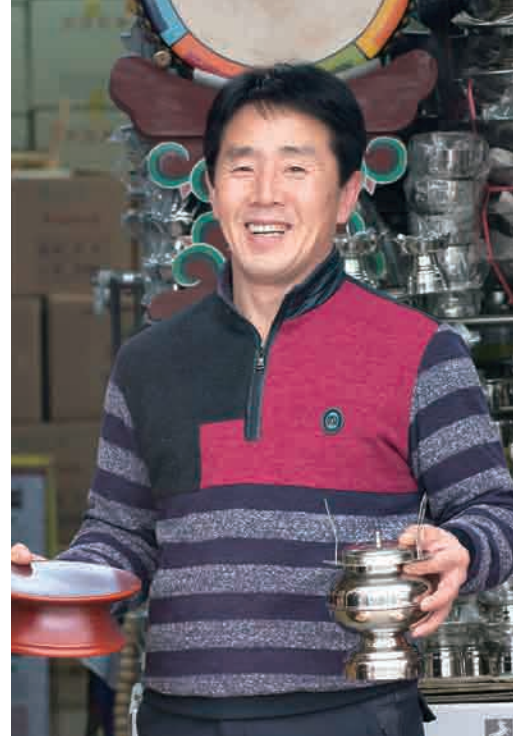
양순옥(57, 신광아동한복)



“전통시장 인정 느끼러 오세요”

어느 상인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식재료 판매 상인인 저에게 명절은 손꼽아지는 시기죠. 제가 판매하는 것 중에는 특히 북어포가 명절에 인기예요. 당연히 걱정되는 부분은 있죠. 주책가 인근에 대형마트가 들어선 이후로는 이른 명절 준비를 하는 사람이 크게 줄었다는 점입니다. 명절을 며칠 앞두고도 장보는 게 가능해졌으니까요. 요즘 같은 추위에 대형마트가 더욱 편리하다는 건 이해합니다. 그래도 전통시장을 찾아 전통시장이 주는 인정을 느껴보심은 어떨까요?

서정국(77, 화홍상회)



“시장 발전에 꾸준한 관심 보여주길”

명절 민속놀이가 익숙했던 예전에는 농악기를 찾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시대가 바뀌면서 그 흐름도 주춤했습니다. 시대 변화의 결과라면 받아들여야겠지만 씁쓸합니다. 전통시장의 발전을 위해 정치인들이 관심을 보여주시기도 했어요. 하지만 꾸준하지 못한 게 단점이라면 단점이겠죠.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는 전통시장 지원 대책이 필요합니다.

한인희(62, 이화불교사)



“설 선물세트로 분위기반등 기대해요”

오래전부터 공방을 운영하는 게 꿈이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일반 기업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임대료와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해주는 청년몰이 생긴다고 하니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아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개점 초기와 비교하면 발길이 뜸한 편이에요. 그렇지만 낙담하진 않아요. 설 선물세트를 기획해 나름대로 설 특수에 대비하고 있거든요. 분위기반등은 노력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점에서 볼 때 비슷한 연령대 상인들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게 이곳의 장점인 것 같아요.

이지은(26, 우든스트)



“상인들도 잘사는 나라 만들어주세요”

영동시장에서 이불과 수예를 판매한 지 18년 정도 됐네요. 이전에 아버지가 45년 동안 건어물 장사를 했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실히 느낄 수 있어요. 이불이나 수예는 명절보다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상대적으로 겨울에 판매량이 증가하는데, 올해는 유난히 어려운 것 같아요. 올겨울은 유독 추워서 이불 판매가 늘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는데 오히려 움츠러들었네요. 설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을 바라지는 않고 우리 가족들 그리고 시장 동료들이 건강하기만 해도 감사해요.

이보순(53, 대명침구)



“먼저 나라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연휴 2주 전이면 복작복작해야 하는데 움직임이 적어요. 매출도 3분의 1 정도에 그쳤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나라가 잘됐으면 좋겠어요. 여태껏 살아오면서 느낀 것인데 나라가 잘돼야 더불어 저도 잘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겠죠. 영동시장 일원으로서 시장 발전 방법을 제안해보면 ‘품목 다양화’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공산품 특화 시장도 좋지만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도 관찮을 것 같아요.

신윤덕(59, 진수성찬)



“제가 만든 물건들 누군가에게 소중한 추억이 되길”

금속공예를 중심으로 3D 프린팅 기술을 접목한 소품과 액세서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요새 비수기예요. 겨울에는 금속 액세서리가 차갑게 느껴질뿐더러 두툼한 옷에 가려져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착용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래서 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 설은 시기적으로 밸런타인데이와 맞물리기도 해서 조금 더 설레요. 판매자 입장을 떠나서, 제가 만든 물건들이 누군가에게 소중한 추억이 되고 이야기가 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오영훈(32, 오씨습씨)

“모두 건강하고 즐거운 명절 됐으면”

수원은 제가 나고 자란 고향이에요. 너무나도 익숙한 이곳 풍경은 영동시장에서 장사를 결심하게 만든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저는 여기서 수제 샌드위치와 브런치를 판매하고 있어요. 새로운 메뉴, 그리고 좋은 음식을 대중화하는 게 목표예요. 젊은 손님들의 입맛도 중요하지만 시장을 찾는 어르신들께 평가를 받고 싶어요. 명절이 되면 평소보다 많은 분들이 올 텐데, 부모님 손을 잡고, 또 자녀의 손을 잡고 와줬으면 해요. 다양한 연령대가 제 음식을 맛보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시장에 활력도 불어넣을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죠. 모두 건강하고 즐거운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임승빈(31, 푸디's 오아시스)





“잊지 못할 추억의 설날, 내겐 감동이었어~”

임연영 | 위클리 공감 기자

“섣달그믐·설날부터 대보름까지, 노는 날 16일”

푸드 칼럼니스트 황교익

“요즘은 1월 1일 하루만 설날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통적으로 농경민족에게 설날은 일종의 봄맞이 행사였지요. 섣달그믐부터 대보름까지, 16일 동안이 설이에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 흔적이 남아 있어서 먹고 놀고 마시는 행사가 많이 있었어요.”

경남 마산이 고향인 황교익의 어린 시절 설날 풍경은 16일 동안 놀았던 기억이 대부분이다. 설이 다가오면 크게 벌어지던 시장, 명절 전 푸짐하게 음식을 마련하고 그 음식을 동네 사람들과 교환하는 따뜻함이 넘치는 정겨운 풍경에 각종 재미있는 전통놀이까지 풍성했다.

“설날 아침에는 다 같이 모여 차례를 지내요. 큰집에 인사를 가고, 둘째 큰집, 할아버지 형제들 집까지 다니면서 하루 종일 절을 하고 보냈죠. 집집마다 맛있는 음식이 많아서 그걸 먹는 재미도 대단했어요. 그다음 날부터는 동네 꼬마들끼리 모여서 놀기 시작하죠.”

팽이, 자치기, 연날리기 등 아이들끼리 모여서 놀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어른들도 합류해서 설날 분위기는 더욱 신명나게 바뀐다. 사람들이 늘어나면 널뛰기,

옷놀이 등 놀이의 규모가 커지고, 거기서 더 가속이 붙으면 줄다리기, 차전놀이 등 마을 단위의 놀이로 이어진다.

대미를 장식하는 것은 대보름날이다. 해마다 집 근처 무학산에서 달집태우기 행사를 크게 했는데, 마을 사람들은 훨씬 전부터 나무 쪼가리를 만들고 짚을 꼬면서 그날을 준비한다. 달이 뜨기 전 연날리기는 가장 인기 있는 놀이. 연싸움에서 이기려고 연줄에 사기나 유리 조각을 붙이며 밤을 새던 아이들이 특히 많았다.

“낮에 놀다가 대보름이 뜨면 하늘로 연을 날려 보내요. 그 행위에 ‘송구영신(送舊迎新)’의 의미를 붙이죠. 연을 날려 보낸다는 뜻은 놀이가 끝난다는 의미기도 해요. 노는 것을 마무리하면서 올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올리면서 설날 행사를 끝내는 거죠.”

그렇게 16일 동안 완벽하게 놀고, 다음 날부터는 본격적으로 일상으로 돌아온다. 저마다



“

설날 아침에는 다 같이 모여
차례를 지내요. 큰집에 인사를
가고, 둘째 큰집, 할아버지
형제들 집까지 다니면서
하루 종일 절을 하고 보냈죠.
집집마다 맛있는 음식이
많아서 그걸 먹는 재미도
대단했어요. 그다음 날부터는
동네 꼬마들끼리 모여서 놀기
시작하죠.

”

논밭에 나가서 밭을 갈고 소를 돌보면서 한 해 농사를 시작한다.

“어릴 때 기억과 원래 의미를 짚어보면 설날은 ‘16일 동안 노는 날’이에요. 산업화, 도시화의 결과로 이제는 그렇게 긴 시간 노는 게 힘들어졌죠. 한국 사회 전체를 위해 일 년에 한 번 크게 노는 축제를 한 번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설날 풍습이 사라지고 있는 게 아쉽잖아요. 형식이 아니라 정신을 복원하자는 마음을 모아봤으면 좋겠어요. ‘놀자’라는 정신을 살려도 괜찮지 않겠어요?”

그의 고향인 마산은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 만든 도시다. 그는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이 모인 마산에서도 설날의 기억이 다양한데, 예부터 내려온 전통 도시들은 더욱 많은 설날 행사가 있었을 것”이라면서 설날의 정신을 다시 짚어볼 것을 제안했다. ⑥

“부모님의 만화방에서 보낸 설날”

만화가 박재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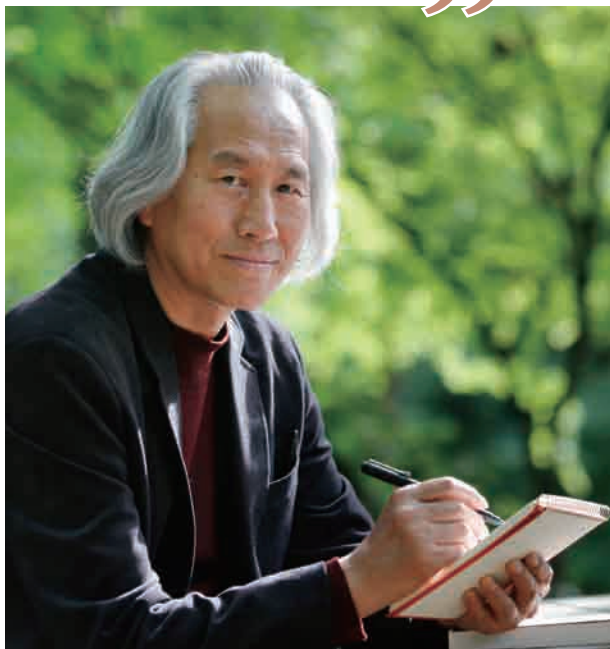
1960년대, 그 시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듯 만화가 박재동의 어린 시절은 가난했다. 부산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그는 설날을 떠올리면 바쁘게 일했던 부모님이 먼저 떠오른다.

“어렸을 때 우리 집이 만화가계를 했어요. 떡볶이, 어묵, 풀빵, 찹쌀떡을 같이 팔았는데 그걸 준비하느라 엄마가 늘 바쁘셨죠. 특히 설날이 제일 바쁜 날이에요. 아이들 손님이 많거든요. 명절이라 어른들에게 용돈을 받으면 모두 만화방으로 오잖아요. 우리는 평소보다 일을 더 해야 해요. 다른 사람들은 명절이면 가족들과 함께 노느라 시간을 보내는데 나는 부모님이 바쁘셔서 그럴 수가 없었어요. 옆에서 일을 도와드렸죠.”

“

그 시절엔 나뿐 아니라 모두가 가난했으니까요. 나는 옆에서 어머니 풀빵 굽는 것도 도와드리고, 시간이 남으면 만화책도 읽고 그렇게 보냈어요. 지금 생각하면 좀 찜찜하기도 한데, 다시 생각하면 평소보다 더 가까이에서 부모님을 도와 드릴 수 있는 소중한 날이었죠.

”



조진표

당시 열 살 무렵이었던 그는 명절에는 엄마의 일손을 거들면서 설날을 보냈다. 간단하게 떡국을 먹긴 했지만 다른 친구들처럼 예쁜 설빔을 입고 명절놀이를 하던 추억은 없다. 만화방을 운영하려면 차를 지낼 여유가 없었다. 경제적인 여유도, 정신적인 여유도 없던 가난한 시절이었다. 어른이 되고 부모님이 장사를 그만두실 때까지 그의 설날 풍경은 그렇게 이어졌다.

“그 시절엔 나뿐 아니라 모두가 가난했으니까요. 나는 옆에서 어머니 풀빵 굽는 것도 도와드리고, 시간이 남으면 만화책도 읽고 그렇게 보냈어요. 지금 생각하면 좀 찜찜하기도 한데, 다시 생각하면 평소보다 더 가까이에서 부모님을 도와드릴 수 있는 소중한 날이었죠.”

남들처럼 풍요롭진 않았지만 매년 돌아오는 설날이 그는 그렇게 좋았다. 해마다 설이 되면 그의 마음속에는 늘 아름다운 설날 풍경이 있었다고 한다. 어려서부터 그림에 남다른 소질이 있던 그는 그림을 보면서 위안을 얻고 상상력을 펼쳤다.

“그때 내가 좋아하던 그림이 문방구에서 팔던 카드예요. ‘근하신년’이라고 적힌 연하장 카드 있잖아요. 그 그림을 보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어요. 은가루를 반짝반짝 붙여서 하얗게 눈 덮인 겨울을 표현하고, 근사한 기와집에 연날리기, 널뛰기 하는 아이들 그림, 눈사람까지... 격조 있는 작가의 작품은 아니지만 그 그림들을 보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아, 이게 설날 풍경이구나!’ 우리 민족이 수천 년 동안 만들어온, 가장 행복한 설날 모습이잖아요. 설날의 추억을 돌이켜보면 그 그림을 바라보며 동경하던 내 모습과 만화가계에서 부모님 일을 거들던 내 모습이 동시에 떠올라요.”

비록 현실에서는 작은 만화가계에서 엄마의 일을 도와주고 있지만 카드에 그려진 예쁜 그림을 보면서 위안을 얻었던 그는 어른이 되어서도 설날이 다가오면 마음이 설렌다. 이번 설날에도 그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고향에 계신 어머니를 만나러 갈 예정이다.

“어른이 되어서 보내는 설날도 좋아요. 세뱃돈을 주는 재미가 있잖아요. 이젠 아이들도 다 커서 세뱃돈을 주는 재미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설날이 주는 충만함이 좋아요. 그래서 늘 기다려져요. 저마다 설날의 풍경은 다르겠지만, 마음속으로 설날이 가진 명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박솔녀

“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 한복을 해달라고 그렇게 울었어요. ‘설날인데 왜 안 해주냐, 예쁜 옷 입혀 달라’고 주저앉아서 다리를 뺀고 울어대니까 엄마가 매우 힘들어하셨어요. 다른 형제들은 안 그런데 유독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옷에 욕심을 부려서 저 혼자 예쁜 한복을 입고 명절을 보내곤 했죠.”

”

“가난해도 꼭 챙겨 입었던 설빔”

한복 디자이너 박솔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박솔녀 한복 매장은 많은 사람이 오가는 곳이다. 명사, 중견 연예인부터 아이돌 스타까지, 분야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이 방문한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한복 디자이너 박솔녀 씨가 있기 때문에이다. 기자가 인터뷰를 위해 방문했을 때는 아이돌 두 팀이 한복 촬영을 위해 다녀가고 막 한숨 돌리는 중이었다.

“설날이 가장 바빠요. 방송을 통해서든 개인적인 관심이든, 젊은 사람들이 우리 한복을 찾아주니까 고맙죠. 요즘은 설날이라고 한복을 갖춰 입는 문화가 많이 바뀌었지만 그렇다고 우리 한복의 멋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한복 디자이너로서 34년을 살아온 만큼 한복의 멋을 잘 이어가고 싶습니다.”

충남 서천이 고향인 박솔녀 디자이너는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

시절 설을 떠올리면 가난하고 추웠다는 기억밖에 없다. 그리고 엄마에게 떼를 써서 받은 예쁜 설빔이 떠오른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 한복을 해달라고 그렇게 울었어요. ‘설날인데 왜 안 해주냐, 예쁜 옷 입혀 달라’고 주저앉아서 다리를 뺀고 울어대니까 엄마가 매우 힘들어하셨어요. 다른 형제들은 안 그런데 유독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옷에 욕심을 부려서 저 혼자 예쁜 한복을 입고 명절을 보내곤 했죠.”

한복 디자이너의 끼를 타고난 것인지 어려서부터 옷 욕심이 많았다고 한다. 그리고 원하는 것이 생기면 그것을 가질 때까지 떼를 쓰고 울음을 그치지 않았던 대단히 욕심이 많은 아이기도 했다. 빵집에서 일하던 오빠가 힘들게 번 돈으로 동생 옷 만들어 주라고 치마 천을 사다준 적도 있었다.

“어머니가 패션 감각이 있었어요. 없는 살림에 3년 할부로 재봉틀을 사서 우리 옷을 만들어주신 분이거든요. 큰딸 시집갈 때 선물하겠다고 미리 목자수를 만들어두실 정도로 솜씨도 좋으셨어요. 덕분에 저는 설날이면 예쁜 옷을 입을 수 있었죠.”

그 시절을 떠올리면 아버지와의 추억도 빠뜨릴 수 없다. 늘 조용한 성품의 아버지였지만 따뜻한 기억이 많다.

“아버지 역시 미감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지게 위에 매달아놓는 바자, 짚신, 광주리를 직접 손으로 짜서 동네방네 나눠주셨어요. 가난했지만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어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 이야기를 하면 아직도 눈물이 흐를 정도로 애뜻하고 아련한 기억이다. 지금은 두 분 모두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어린 시절의 추억은 시간이 흘러도 그대로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준다.

“예전에는 명절이 되면 어떻게 하면 옷을 더 예쁘게 입을까만 생각했어요. 지금은 매일 설빔이지만요. 제가 한복 디자이너인 만큼 일주일에 다섯 이상은 한복을 입고 노력합니다. 한복을 입고 있으면 행복해져요. 어린 시절의 따뜻한 기억을 떠올리는 기분도 참 좋고요.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족과 함께 따뜻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복의 매력도 한 번씩 떠올려보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설 명절 연휴 뭐하고 놀까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설 연휴가 이어진다. 올해는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 설 연휴가 들어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풍성하다. 문화계에서는 설이면 만날 수 있는 마당놀이가 올해는 '심청이 온다'로 관객을 찾아왔다. 유쾌한 로맨틱 코미디 뮤지컬 '레드북'도 관객을 기다린다. 이제는 고인이 된 배우 김주혁의 유작 '홍부'가 설 연휴 직전 개봉하고, 러시아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의 명작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원작으로 한 뮤지컬 '브라더스 카라마조프'도 만나볼 수 있다. 처음으로 세계일주를 했던 조선 여성이 들려주는 <조선여성 첫 세계일주기>는 설 명절 고향을 찾는 길에 읽어볼 만한 책이다.

조동진 | 위클리 공감 기자

당찬 여자와 고지식한 남자의 유쾌한 이야기

뮤지컬 | 레드북

"난 슬퍼질 때마다 야한 상상을 한다"는 엉뚱하지만 당당한 여자와 고지식한 변호사 청년이 펼치는 로맨틱 코미디가 설 연휴를 맞아 관객들을 찾아왔다. 제목부터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뮤지컬 '레드북'이다. '슬퍼질 때마다 야한 상상을 한다'는 당찬 목소리에 야릇한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필요는 없다. '레드북'은 엄연히 12세 이상이면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 알고 보면 끼와 웃음으로 무장한 즐겁고 건전한 로맨틱 코미디 뮤지컬이다.

신사의 나라 영국이 가장 보수적인 시기였던 19세기, 신사로 사는 것밖에 몰랐던 변호사 청년 브라운과 숙녀로 사는 것보다는 진짜 '나'의 정체성을 고민하며 소설을 쓰던 안나가 만나 티격태격 벌이는 유쾌한 사랑 이야기다. 이런 사랑 이야기에 더해 안나가 첫사랑의 야릇한 추억 이야기를 바탕으로 <레드북>이란 잡지를 펴내며 세상의 편견과 통념에 맞서는 이야기도 함께 그려진다.

2017년 1월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에서 초연을 시작으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레드북'. 불과 1년여 만에 '레드북'은 문화 평론계로부터 실력을 인정받는 한국의 대표적 창작뮤지컬로 꼽히고 있다. 올해 1월 22일 경희대 평화의전당에서 열린 제2회 한국뮤지컬어워즈 당시 쟁쟁한 대작들 사이에서 존재감을 발휘했다. 대상과 작품상, 여자주연상과 남여조연상, 연출상과 프로듀서상 등 무려 9개 부문에서 수상 후보에 올랐을 정도다. 또 2016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연예술 지원사업인 '공연예술 창작 산실 우수 신작'으로 선정돼 일찍부터 기대를 모았던 작품이다.

로맨틱 코미디 뮤지컬 '레드북'은 사랑 이야기를 다루는 기존의 작품들과는 다른 구조로 극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여자주인공 안나는 사회적 지위나 명성 없이 자신에게 닥쳐온 위협을 당당하게 극복해가는 행동력을 보여준다. 반면 남자주인공 브라운은 그 흔한 이름처럼 고지식하고 고정관념에 갇혀 사는 캐릭터다. 또 당당하게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안나와 달리 수동적인 역할에 머물고 있다. 이런 안나와 브라운이 만나 유쾌한 웃음과 함께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온갖 편견을 꼬집고 있다.

가수로 더 알려진 아이비와 지난해 시범공연 때부터 함께해온 배우 유리아가 당찬 안나 역할을 맡았고, 브라운 역은 박은석과 이상이가 번갈아 무대에 오른다.

기간 3월 30일까지

장소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문의 02-399-1000



극과 극의 두 남자가 보여준 보편적 감성

연극 | 거미여인의 키스

이념적으로 너무 다른 두 남자, 몰리나와 발렌틴이 감옥에서 한 방을 쓰게 되며 서로를 조금씩 이해해가는 과정을 그린 연극이 한국 관객을 만나고 있다. 아르헨티나 출신 작가 마누엘 푸익이 스페인에서 발표했던 동명의 원작 소설이 바탕인 연극 '거미여인의 키스'다. 연극은 시대적 문제를 안고 서로 다른 세상을 살아온 두 남자가 전하는 따뜻한 인간애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모든 것이 다른 연극 속 두 남자는 극과 극의 차이가 사실은 '차별'이나 '틀림'이 아닌 '다름'일 뿐이라고 말한다.

기간 2월 25일까지 장소 대학로 아트원씨어터 2관 문의 02-764-87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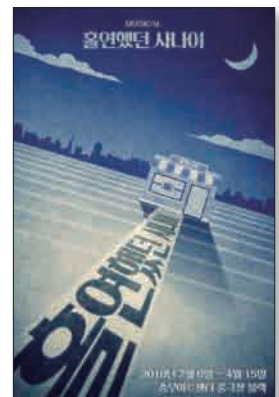


셰익스피어의 극적인 희곡

연극 | 리처드 3세

영국 역사에서 가장 극적이고 피비린내 나는 왕위 찬탈 이야기이자, 셰익스피어의 희곡 중 무대에 가장 자주 오르는 이야기, 바로 연극 '리처드 3세'다. 비범한 두뇌와 뛰어난 말솜씨를 가진 왕자로 태어났지만 곱추라는 신체적 장애를 가진 리처드 3세. 태생적 신체장애와 형에 대한 열등감은 그를 무섭게 변신시킨다. 리처드 3세의 뒤를린 권력욕은 남편과 시아버지를 죽인 여자와 결혼하고 어린 두 조카를 살해한 뒤에도 해소되지 않는다. '리처드 3세'는 황정민의 연극무대 복귀작으로도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기간 3월 4일까지 장소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문의 02-6925-5600



뻘한 세상의 꿈 이야기

뮤지컬 | 홀연했던 사나이

평범했던 사람이 예술적 작업을 통해 꿈꾸는 인간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담은 창작 뮤지컬이 무대 위에 올려졌다. 현대를 살아가는 지친 우리에게 명쾌하고도 알싸한 웃음을 선사하는 뮤지컬 '홀연했던 사나이'다. 1987년, 모든 것이 변화를 요구하던 그 시대에 불안한 꿈을 안고 살았던 셋별 다방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와 '팬레터' 등의 작품을 통해 젊고 감각적인 뮤지컬을 선보이고 있는 김태형이 연출을 맡았다.

기간 4월 15일까지

장소 충무아트센터 중극장 블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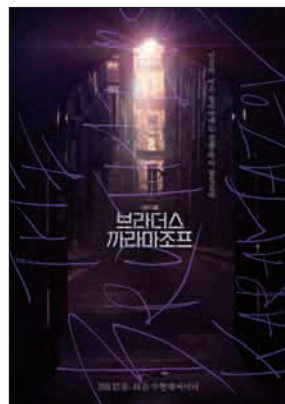
문의 1577-3363

대문호의 원작을 무대에서 만나다

뮤지컬 | 브라더스 까라마조프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의 명작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원작으로 한 뮤지컬 한 편이 찾아왔다. '브라더스 까라마조프'다. 이 뮤지컬은 의문의 살인 사건으로 죽음을 맞이한 아버지와 이 사건을 둘러싼 네 형제의 심리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원작이 담고 있는 깊은 사상적 고민을 무대 위에서 느껴볼 수 있다. 특히 인간 내면에 숨겨져 있는 모순과 진실을 정면으로 끌어냄으로써 삶과 죽음, 사랑과 증오, 선과 악, 인간 본성에 대해 답을 찾아가고 있다. 가벼운 것들로 가득한 시대, 대문호의 고민과 철학적 담론을 느껴볼 수 있는 기회다.

기간 4월 15일까지 장소 수현재씨어터 문의 02-744-7661





해학과 풍자 가득한 심청이 돌아왔다

마당놀이 | 심청이 온다

이번 설에도 가장 한국적인 공연이 관객들을 찾아왔다. 한국인의 희로애락(喜怒哀樂)이 녹아 있는 전통극 마당놀이 가 국립극장에서 열리고 있다. <심청전>을 바탕으로 만든 마당놀이 '심청이 온다'이다. 마당놀이는 1981년 대중에 첫선을 보인 이후 30년 동안 이어지며 약 350만 명 관람객과 함께해온 공연이 2010년 중단됐다. 그 마당놀이가 부활한 것이 2014년이다. 당시 국립극장은 대극장인 해오름극장 무대 위에 마당과 3면 객석을 설치한 후 마당놀이 부활을 알린 첫 작품으로 '심청이 온다'를 올렸다. 이후 국립극장은 2015년 '춘향이 온다'에 이어 2016년 '놀보가 온다'를 연이어 마당놀이 무대에 올리며 총 118회 공연에 12만 5786명의 관람객을 끌어 모았다. 그리고 국립극장이 2014년 마당놀이 부활을 알린 작품으로 세상에 내놓았던 '심청이 온다'를 지난해 12월 8일부터 다시 무대에 올린 것이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월 18일까지 이어질 이번 '심청이 온다'에서 주인공 심청 역은 2014년 초연 당시에도 심청을 맡아 주목받았던 민은경, 또 탄탄하고 안정된 연기력을 보이고 있는 장서윤이 맡았다. 심봉사 역은 이광복과 유태평양이, 뽕덕 역은 국립극장 마당놀이의 마스코트로 불리는 서정금과 지난해 마당놀이 '놀보가 온다'에서 놀보의 처로 등장했던 조유아가 맡았다.

기간 2월 18일까지

장소 국립극장 하늘극장

문의 02-2280-4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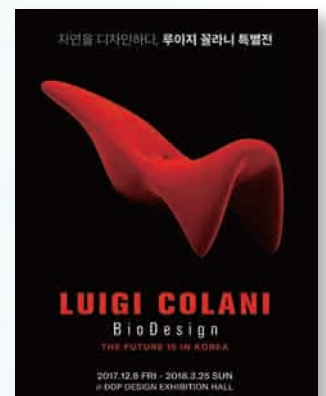
자연을 디자인하다

전시 | 루이지 콜라니 특별전

독일 베를린 태생의 스위스 디자이너 루이지 콜라니는 산업, 환경, 인테리어, 제품, 패션 등 모든 디자인 영역에서 독특한 자기 세계를 그려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 루이지 콜라니의 디자인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열렸다. 그의 디자인이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 중 하나는 그가 다른 디자이너들과 달리 공학적인 요소를 디자인에 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기역학과 인체공학의 관점에서 디자인한 것으로 유명한 작품들이 즐비하다. 이번 전시에는 공학적 요소와 자연의 형태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루이지 콜라니의 작품 100여 점과 최초로 공개되는 그의 드로잉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기간 3월 25일까지(2월 16일 휴관) 장소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디자인전시관

문의 02-2153-0690



그리운 배우 김주혁의 유작

영화 | 흥부

그리운 배우가 돼버린 고(故) 김주혁의 유작 '흥부'가 우리 곁을 찾아온다. 양반들의 권력 다툼으로 백성의 삶이 날로 파멸해져가던 조선 헌종 14년, 붓 하나로 조선을 들썩이게 만든 천재 작가 흥부. 그가 어릴 적 홍경래의 난으로 헤어진 형 놀부를 찾기 위해 글로 자신의 이름을 알리려 한다. 흥부는 수 소문 끝에 형 소식을 안다는 조혁을 만나고, 그런 조혁이 백성의 정신적 지도자로 존경받는 모습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다. 백성을 생각하는 동생 조혁과 달리 권세에 눈먼 형 조항리의 야욕을 본 흥부는 서로 너무도 다른 삶을 살아가는 형제의 이야기를 쓰기로 결심한다. 영화 속 흥부전은 그렇게 시작된다. 조혁의 모습 속에서 배우 김주혁에 대한 그리움이 더해진다.

개봉일 2월 14일



모범시민에게 닥친 위기

영화 | 골든슬럼버

모범시민으로 선정돼 유명세를 탄 착하고 성실한 택배기사 건우에게 고등학교 시절 친구 무열이 연락을 해온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다는 반가움도 잠시, 그들 눈앞에서 유력 대선 후보가 폭탄 테러로 암살당하는 사건이 벌어진다. 무열이 당황한 건우에게 '모든 것이 건우를 암살범으로 만들기 위해 계획된 것이고, 그 자리에서 자폭을 시키는 게 조직의 계획이었다'는 이야기를 전한다. 영화계 흥행 배우로 꼽히는 강동원과 가수에서 이제는 배우로 자리를 잡은 윤계상이 긴장감 넘치는 연기를 선보이는 영화 '골든슬럼버' 이야기다. 한국에서도 탄탄한 독자층을 갖고 있는 일본 작가 이사가 코타로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설연휴 직전 개봉한다.

개봉일 2월 14일



전 세계 야생동물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전시 | 와일드라이프 사진·체험전

세계적인 야생동물 사진가들이 촬영한 대형 야생동물 사진 작품 100여 점이 한국 관람객에게 선보이고 있다. 전 세계 야생동물들을 생생하게 만나볼 수 있는 '와일드라이프 사진·체험전'이다. 이번 전시는 평면 속 사진만이 아니라 대형 화면을 통해 세계의 야생동물들과 교감할 수 있는 증강현실 체험관도 함께 마련돼 있다. 영국 국립 자연사박물관과 BBC 와일드라이프(Wildlife)에서 매년 주최하는 '올해의 야생사진가 상'을 수상한 작가들의 작품도 전시되고 있다. 가족 단위 관람객에게 좋은 볼거리가 될 것이다.

기간 3월 4일까지 장소 강동아트센터 문의 1688-2689



90년 전 우리의 신여성 세계로 나가기

책 | 조선여성 첫 세계일주기

지금부터 90년 전 서양화가 나혜석은 약 20개월에 걸쳐 세계일주를 하게 된다. 나혜석은 1900년대 초 신여성을 상징하는 인물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동경 유학생이고, 서양화가였다. 일제강점기라는 척박한 시대에 그렇게 오랫동안 세계를 누볐다는 것, 또 그의 궤적이 완벽하게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있는 점이 놀랍다. 바로 우리나라 여성이 남긴 최초의 세계일주기가 책으로 나왔다. 90년 전 나혜석의 세계일주 여행기는 그가 남긴 모든 기행문을 집대성한 것으로 그가 떠난 여행 순서를 따라 구성돼 있다. 이 책은 당시 신여성들의 세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기록이자, 세계로 나간 한국인의 이야기라는 데 의미가 있다.

저자 나혜석(가가날)

살찌는 명절 덜 찌는 운동법 5

이근하 | 위클리 공감 기자

살찌는 건 걱정되지만 눈앞에 놓인 음식을 포기할 수 없을 때 스스로 최면을 거는 말이 있다.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체중 증가에 대한 우려를 조금이나마 덜기 위한 자기 위로다. 그런데 이런 위로도 통하지 않는 시기가 돌아왔다. 평소보다 더 과식하기 쉬운 설 명절이다. 몇 개 집어 먹은 것 같지 않은데 그새 불어난 뱃살이 눈에 들어온다. 그렇다고 먹는 즐거움을 포기할 쏘냐. 살찌는 명절, 덜 찌는 운동법을 소개한다.

버피 테스트



짧은 시간 동안 운동 효과를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유산소성 근력 운동이다. 손 짚고 엎드리기를 반복하는 게 핵심. 별도의 도구나 넓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다. 누울 수 있는 정도, 똑바로 설 수 있을 정도의 공간만 확보된다면 충분하다. 우선 허리를 곧게 펴고 선다. 곧바로 상체를 숙이고 바닥에 양손을 짚은 다음 양쪽 다리를 점프하듯 뒤로 쭉 뻗어 어깨와 발끝이 일직선을 이루도록 한다. 다시 양쪽 다리를 한 번에 앞으로 당기고 처음 자세로 돌아간다. 전신 근육을 이용하기 때문에 몇 번 움직이지 않아도 가쁜 숨을 몰아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플랭크



별것 없어 보이는 동작 같지만 칼로리 소모가 높은 운동 중 하나다. 전신을 골고루 자극하기 때문에 허리 통증과 뱃살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근력 운동과 병행한다면 체력 증진은 덤이다.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다. 손바닥을 바닥에 대고 엎드린 뒤 팔꿈치를 90도로 굽힌 채 팔뚝을 바닥에 댄다. 팔뚝이 몸을 지탱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때 머리와 몸은 일자를 유지하며 발끝을 정강이 쪽으로 잡아당긴다. 그 자세를 30초간 유지한다. 미세한 떨림이 온몸에 느껴져 포기하고 싶다면 기억하자. '내 지방이 타고 있다.' 다만 플랭크를 할 때 허리의 C자 곡선은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굽은 자세가 된다면 디스크가 찢어지거나 허리 통증이 생길 수 있다. 기본 동작에 변형을 준 리버스 플랭크도 있다. 기본 자세와 반대로 다리를 쭉 펴고 바닥에 엎드린 양손을 등 뒤로 돌려 바닥을 짚는다. 그리고 엉덩이를 최대한 수축시켜 들어올린다. 손목이 약한 경우 팔꿈치를 구부려 몸을 지탱하길 권한다.

마운트 클라이밍



명칭에서 이미 눈치챌겠지만 마운트 클라이밍은 마치 암벽을 등반하는 모습과 흡사한 전신 운동이다. 운동 방법 또한 등산 자세와 크게 다를 바 없다. 양손을 바닥에 대고 곧게 엮드린 자세로 왼쪽 다리를 들어 허리까지 올린다. 이제 왼쪽 다리를 내리고 오른쪽 다리를 빠르게 올려준다. 두 다리를 교차하며 반복 실시한다. 주의할 점은 허리가 굽지 않도록 하고 어깨와 손목이 일직선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사이드밴드

사이드밴드는 맛있는 명절 음식 덕에 늘어난 옆구리 살 제거에 특효약이다. 목도리 도마뱀을 흉내 내던 어릴 적 기억을 소환해보자. 우선 선 채로 양손을 머리에 두고 다리를 어깨너비로 벌린다. 다음은 허벅지 앞쪽 근육을 이용해 한쪽 다리를 옆구리를 향해 들어올린다. 상체 또한 올라오는 무릎과 닿을 수 있을 정도로 숙인다. ⑥



CG인디아

스쿼트



한마디로 설명하면 허벅지가 무릎과 수평이 될 때까지 앉았다 섰다를 반복하면 된다. 어느 운동보다 정확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데, 잘못된 자세를 반복할 경우 허리디스크가 손상되거나 무릎 연골이 찢어질 수도 있다. 허리의 C자 곡선이 절대로 풀리지 않아야 하고, 무릎이 발보다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엉덩이를 뒤로 빼야 한다. 양손에 페트병이나 아령 등 적당한 무게의 물체를 드는 것도 도움이 된다.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명절 운동 팁'

명절 연휴를 마치고 운동이 필요한 이유는 비단 칼로리 소모만이 아니다. 장시간 운전으로 뭉친 어깨 근육, 음식 장만으로 빠근해진 손목 근육을 풀기 위한 간단한 스트레칭도 필수다. 간단한 팁을 건네자면 뭉친 방향과 반대쪽으로 근육 이완 동작을 한다. 이를테면 오래 굽히고 일한 탓에 긴장된 허리 근육을 풀기 위해서는 각지를 긴 채 몸을 뒤로 젖히는 방식이다. 단순한 스트레칭은 20초면 충분하지만 15~20분 정도 자세를 유지할 것을 권한다. 아울러 어떤 스트레칭을 하든지 호흡을 길게 뱉고 길게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이준영 | 아이유웰 웰플러스 마포주민편익시설 담당자

연어 떼처럼 고향을 찾는 사람들

“아무리 매운 추위 속에/한 해가 가고/또 올지라도//어린것들 잇몸에
돋아나는/고운 이빨을 보듯/새해는 그렇게 맞을 일이다.”(김종길, ‘설날
아침에’ 중에서)

설날이면 팔도강산에서 모인 사람들은 아름다운 동행에 나선다. 때로
는 가장으로서의 무거운 어깨, 사업과 구조조정, 불효 등으로 가슴이 아
리곤 하지만, 자식과 손주에 대한 기다림으로 깊어간 시간들, 그런 그리
움에 사무치다 선산에 묻힌 혈육의 끈끈한 세월만큼 더할 수는 없다.

저마다 연어 떼처럼 모천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마음 깊이 간직한 안부
편지의 수신인은 어머니고 고향이 기항지다. 입김 서린 차창에 기대어
줄고 있는 풍경, 갯길에서 기지개를 펴는 사람들이 찾아가는 그곳은 우
리들의 원초적 본향이다. 그 여정에 마주친 얼굴들을 보면, 꼭 한 번쯤 어
디선가 마주쳤을 것만 같은 사람들이다.

세상이 좋아져 섬과 섬 사이를 연륙교로 이어가
고 있다. 육지와 본섬 사이를 건너 편안하게 고향에
당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본섬에서 다시 작은 섬,
그 작은 섬에서 더 외딴 섬으로 건너가야 하는 사람
들도 있다. 남해안과 서해안에 딸린 섬사람들은 그
렇게 물에서 섬으로, 섬에서 섬으로 건너가는 삶을
살아간다.

문제는 철부선이 항해할 수 없을 정도로 기상 상
태가 안 좋거나, 철부선이 운항을 해도 다시 작은
배가 들어가기에는 섬과 섬 사이에 파도가 거센 경
우다. 경기 시흥시와 안산시는 방조제로 대부도가
지 연결했고 다시 대부도와 영흥도와 선재도가 다
리로 연결됐다. 이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인천항



에서 배를 타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들 섬에서 다시 배를 타야 하는 사람들은 바다 날씨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선재도에서 건너 들어가는 작은 섬 측도는 섬에서 570m 정도의 거리에 있다. 하루 두 번 썰물 때 건너갈 수 있다. 서산 옹도 섬사람들도 이렇게 물때에 맞춰 섬을 드나든다.

밀물과 썰물은 달과 태양의 인력, 지구의 원심력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이다. 달과 태양이 지구와 일직선상에 놓이면 끌어당기는 힘이 가장 커져 달 쪽을 향해 바닷물이 부풀어 올라 밀물이 되고, 반대로 태양과 지구와 달이 직각을 이룰 때 바닷물이 줄어들게 되어 썰물이 된다. 이런 원리를 이용해 관광 마케팅으로 활용한 것이 이른바 ‘모세의 기적’, ‘신비의 바닷길’이라는 것이다. 해양 용어는 ‘해할’이다. 정월대보름 전후 바다 수면이 해저보다 낮아지면서 바다가 갈라지는 현상이다. 진도, 여수 추도 일대, 완도 동부 일대, 화성 제부도, 서산 옹도, 보령 무창포 등 남서해안에 산재한다. 섬사람들은 이를 이용해 바지락을 캐고 그물을 털러 나간다.

완도의 사후도 사람들은 완도 본섬 대야리 선착장에서, 고마도 사람들은 영풍리 선착장에서 보트나 어선을 타고 섬을 건넌다. 제주도 우도는 성산포항에서 5분 거리에 있지만 물살이 거센 해협 때문에 풍랑주의보가 내리면 고향 섬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되돌아서야 한다. 통영, 신안, 진도, 옹진에 딸린 수천 개 다도해 섬들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해상 날씨가 궂은 날에는 여객선터미널 근처 여관에는 때아닌 투숙객들로 붐빈다. 그들은 고향을 바로 앞에 두고 이제나저제나 주의보가 해제되기를 기다린다. 번덕이 심한 해상 날씨는 출항 한 시간 전에 바닷길을 가로막곤 한다. 항구 앞바다는 잔

잔해도 먼 바다에 풍랑이 거세면 출항이 금지된다.

살며 사랑하며 무심히 흘러온 시간들 속에서 꼭꼭 눌러둔 그리움들. 그 그리움으로 깊어간 고향 섬으로 가는 길은 만만치가 않다.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며 단 한 번도 자연을 거역한 적이 없다. 고향 앞바다에서 맑고 푸른 파도 소리에 각지고 팍팍한 삶을 잠시나마 행귀내고 싶었을 뿐이다. 바다가 열어준 시공간만큼 순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도 “매양 추위 속에/해는 가고 또 오는 거지만/새해는 그런대로 따스하게 맞을 일”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게 운명이다. 그러니 “오늘 아침/따뜻한 한 잔 술과/한 그릇 국을 앞에 하였거든//그것만으로도 푸지고/고마운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간다. ㉠

박상건 한국잡지학회장은 ‘샘이깊은물’ 편집부장과 월간 ‘섬’ 발행인을 지냈고 현재 사단법인 ‘섬문화연구소’ 소장이다. 섬과 등대 이야기를 수년간 써왔으며 단행본도 출간했다. 학자이자 여행가, 작가이기도 한 그는 지금도 틈날 때마다 섬으로 여행을 떠난다.

고마도로 건너
가는 귀향객들
| 박상건





보겔, '오감', 1630, 나무에 유채, 55x73cm, 루브르 박물관

인간의 오감, 그 묘한 이중성

서양미술은 사실적인 묘사를 중시해왔다. 자연히 감각적인 표현이 발달했다. 감각을 중시하는 이런 전통에서 나온 서양 회화의 중요한 장르 가운데 하나가 '오감도'다.

오감도는 인간의 다섯 가지 감각, 곧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을 한 그림 또는 연작으로 표현한 그림이다. 감각을 주제로 하여 대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회화인 만큼 감각적인 묘사가 돋보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사회의 도덕관을 의식해 감각적이고 세속적인 즐거움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묘한 이중성이 아닐 수 없다. 전근대사회에서 물

질적으로 보다 풍요로워지는 근대사회로 넘어오는 이행기 유럽의 긴장과 갈등을 잘 느끼게 해주는 그림이라 하겠다.

가장 널리 알려진 오감도는 루뱅 보겔의 '오감'이다. 테이블 위에 악보와 류트, 트럼프, 돈주머니, 타원형 진주, 와인, 빵, 체스판, 카네이션 꽃병, 거울이 놓여 있다. 여러 개의 사물을 그렸지만, 카네이션을 빼고는 모두 하나씩만 그려져 있어 그다지 복잡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려진 사물은 각각 인간의 오감 가운데 어느 하나를 나타낸다. 악보와 류트는 청각, 트럼프와 돈주머니, 진주, 체

스판은 촉각, 와인과 빵은 미각, 카네이션은 후각, 그리고 거울은 시각을 상징한다.

오감을 상징물로 나타낸 것 외에는 특별할 게 없어 보이는 그림이지만, 거울에 이르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아니, 거울이 왜 저리도 어두울까? 앞에 사물이 많이 늘어섰음에도 하나도 비치지는 게 없다. 보깁은 왜 비치지 않는 거울을 그렸을까? 바로 감각의 찰나성과 허무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다. 감각적 경험이란 거울의 상처처럼 스쳐지나가는 것일 뿐이고, 이에 의지해 사는 육체도 순간의 시간을 살다 사라지는 것일 뿐이라는 메시지다.

거기에 생각이 미치면, 와인과 빵도 다시 보게 된다. 포도와 빵은 예수의 피와 살 또는 영성체(성찬식)를 나타내는 전형적인 모티프다. 그 곁의 카네이션은 신성한 사랑을 의미하는 바로크시대의 상징이다. 세 송이가 꽃혀 있으니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를 뜻함을 알 수 있다. 모두 ‘성(聖)’과 관련된 것들이다.

반면 테이블 앞쪽에 늘어선 악보와 류트, 카드, 돈주머니, 진주, 체스판은 ‘속(俗)’과 관련된 이미지들이다. 순간의 즐거움, 육체의 욕망과 긴밀히 이어져 있는 것들이다. 화가는 묻는다. 눈앞의 욕망을 택할 것인가, 그 뒤의 거룩한 세계를 택할 것인가? 류트는 얹어져 있고 돈주머니는 닫혀 있다. 트럼프는 앞면이 위로 놓여 있고 체스판은 잠겨 있다. 놀이도, 유흥도, 도박도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당신에게는 지금, 선택의 기회가 있다.

당신이 무엇을 선택할까 망설이고 있다면, 화가의 원근법에 좀 더 주목해 그림을 볼 필요가 있다. 체스판과 거울에 작용하는 원근법을 보면 코앞의 테이블에 놓여 있는 사물 치고는 뒤로 줄어드는 각이 상당히 좁다. 그 줄어드는 끝에 있을 소실점이 금세 보일 것만 같다. 이는 일종의 화살표를 연상시킨다. 뒤의 것, 곧 거룩한 것을 택하라는 화가의 강력한 요청이 담긴 표현인 것이다.

이런 정물화 형식이 아니라 인물화 형식으로, 인물과 주변 소품을 오감과 관련된 것으로 그려 넣어 오감도를 만든 작품도 있다. 바로크회화의 대가 카라바조가 그린 ‘류트 연주자’가 바로 그런 그림이다. 빛을 받아 또렷이 부각된 연주자를 중심으로 꽃, 과일, 악기 등이 동원됐다. 역시 꽃은 후

각, 과일은 미각, 바이올린 등 악기는 청각, 음표가 선명하게 그려진 악보는 (청각과 함께) 시각을 나타낸다. 그러면 촉각은 무엇으로 나타냈는가? 바로 그림의 핏진성(신뢰할 만하고 개연성이 있다고 독자에게 납득시키는 정도)이다. 이차원 평면 위에 그렸지만 삼차원 입체를 보는 것처럼 생생하다. 사물의 질감이 사실 그대로 느껴질 것 같다.

의미심장한 것은 그림의 바이올린 현 하나가 끊어져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꽃이 곧 시들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젊은이의 저 팽팽한 얼굴에 곧 주름이 질 것이라는 사실과 이어져 이 ‘감각 세상’의 무상함을 상기시킨다.

두 그림 모두 이렇듯 육체와 감각의 한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물 묘사가 워낙 뛰어나다 보니 보는 이는 아무래도 그 주제보다 감각적인 묘사에 더 빠져들게 된다. 주제와 형식의 이 같은 갈등 때문에 오감도에는 항상 긴장이 발생하는데, 이는 앞에서 언급한, 전근대에서 근대로 넘어가던 이행기 유럽의 의식 충돌 현상이 반영된 탓이 크다.

오감 주제의 그림이 부쩍 많이 그려지기 시작한 시기는 16세기 말~17세기 무렵이다. 이 시기 유럽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보다 경제에서 시작됐다. 널리 알려져 있듯 근대 초기 유럽의 상공업은 자본주의와 중상주의에 의해 지배됐다. 이 두 체제의 병진(竝進)으로 유럽 문명은 폐쇄적인 길드 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상업과 무역 분야에서 혁명적인 발전과 팽창을 이뤘다. 주기적인 식량 위기가 완화되고, 식민지로부터 각종 특산물들이 흘러들어오는 등 물질에 대한 유럽인들의 감각에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 무엇보다 사치품에 대한 욕구가 치솟았고, 감각의 만족을 극대화하려는 양상이 나타났다. 바로 이런 배경을 타고 감각을 주제로 한 오감도가 무수히 그려지게 된 것이다. ㉔

미술평론가 이주헌은 미술 담당 기자를 거쳐 학교재 관장을 지냈다. <50일간의 유럽 미술관 체험>, <내 마음속의 그림>, <서양화 자신있게 보기>, <이주헌의 아트카페>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발상의 전환’을 생각한다

얼마 전, 한 지인 모임에서 ‘한류’에 대해 얘기를 나눈 적이 있다. 본래 지인 모임이라는 게 그렇듯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대화를 나눈 것은 아니었다. 최근 유행하는 대중가요나 TV 드라마 얘기에서부터 외국 여행 중 보거나 들었던 것, 어디에서 주워들은 짧은 정보까지 두서없이 자유롭게 얘기를 나누었다. 그러던 중 누군가가 “우리나라에는 전 세계에 수출(?)할 철학이 없을까?”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얘기의 취지는 이러했다. 외국에는 플라톤이나 칸트 같은 철학자들이 있고 오늘날에도 그들이 쓴 저작을 고전이라며 전 세계에서 읽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럴 만한 철학자도 저작도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였다.

기발한 문제 제기에 재미있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그런데 대화를 하면서 고전이나 철학에 대해 오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전은 대작(大作)이어야 한다. 철학은 유럽 이외에는 없다. 철학은 무언가 특별한 것이다 등등이 그것이다. 플라톤의 〈국가〉나 칸트의 〈순수이성비판〉은 분량이 수백 쪽에 이르는 대작이다. 그렇지 만 대작이기 때문에 고전인 것은 아니다. 대작 여부로 따진다면 조선 말의 최한기를 따를 학자는 없다. 그는 1000권이 넘는 저작을 남겼는데, 그중 분량이 수백 쪽 이상이 되는 저작도 여러 편이다. 문제는 관심도의 차이다. 플라톤이나 칸트는 관심의 대상이지만 최한기는 그렇지 못하다.

관심도의 차이는 철학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는 것 같다. ‘철학’은 고대 그리스에서 생겨난 ‘필로소피(philosophy)’를 번역한 말이다. 필로소피가 유럽에서 생긴 것이므로 유럽 이외의 지역에는 철학이 없거나 변변치 못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동아시아에서는 유럽의 필로소피에 해당하는 것을 ‘학(學)’으로 표현했다. ‘철학’이라는 번역어 자체가 ‘학’ 앞에 ‘철(哲)’자를 붙여 넣은 것에 불과하다. 그 뿐만 아니라 인도나 중동지역에도 필로소피에 해당하는 개념이 존재

했다. 따라서 철학은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존재해왔다.

철학이 세계 어디에나 존재한 이유는 특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칸트를 예로 들어보자. 그는 자신의 철학적 업적을 두고 ‘코페르니쿠스적 전회(Copernican revolution)’라고 했다. 코페르니쿠스는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사실을 발견한 천문학자다. 칸트는 코페르니쿠스가 천문학적 사실을 뒤집어놓았듯이, 자신이 철학을 뒤집어놓았다고 자부했다.

무엇을 뒤집어놓았다는 것일까? 우리 눈앞의 어떤 물체가 꽃이라는 것을 안다. 왜? 그것이 꽃이니까. 그런데 칸트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물체를 꽃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김춘수의 시 〈꽃〉이 연상된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선후관계를 뒤집어놓았다. 그 물체가 꽃이기 때문에 우리가 꽃이라고 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물체가 꽃이 되었다. 그러면 그 물체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 칸트는 알 수 없다며, 그냥 ‘물자체(物自體)’라고 부르자고 했다. 납득하기 어렵지만, 일단 계속 따라가보자. 도대체 왜 그런 주장을 했을까? 종교와 과학의 갈등 때문이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종교와 부딪쳤고, 때로는 종교가 과학을 박해하기도 했다. 코페르니쿠스는 위대한 발견을 하고도 박해가 두려워 발표하지 못했다. 코페르니쿠스를 지지한 갈릴레이는 종교재판을 받아 자신의 주장을 부정해야 했다.

칸트의 시대에도 종교와 과학의 갈등은 여전했다.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는 종교가 과학의 발전을 제약하지 않게 할 방도를 찾았다. 그래서 물자체가 등장했다. 종교와 과학의 영역을 구분하고자 한 것이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물자체는 종교의 영

“

철학은 삶 속에 있다. 시대적 문제라 해서 멀리 있지 않다. 시대적 문제란 다수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문제일 뿐이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삶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정의가 그렇고, 평화가 그렇고, 평등이 그렇다. 삶과 긴밀히 연관된 관심사가 시대적 문제가 되고, 그것들을 생각해보는 데서 철학은 시작된다.

”

역이므로 존중하고, 그 이외에는 과학의 영역이므로 종교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자 선후관계를 뒤바꾸었다. 이렇듯 칸트는 자기 시대의 절실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고자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를 했다. 코페르니쿠스가 천문학적 사실을 뒤집은 것에 착안한 발상의 전환이었다.

우리나라로 시선을 돌려보자. 칸트와 동시대의 인물인 홍대용은 ‘지구가 돈다’는 ‘지전설’을 주장한 학자이다. 그는 〈의산문답〉에서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이 귀하고 사물이 천하지만, 사물의 관점에서 보면 사물이 귀하고 사람이 천하다. 하늘에서 보면 사람과 사물은 똑같다”라고 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한 것일까? 단 하나의 중심은 없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다. 사람의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사물의 관점에서 볼 수도 있다. 아니면 하늘에서 내려다볼 수도 있다.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 세상이 달리 보인다.

지금은 당연해 보이는 그 말은 당시에는 혁신적인 발언이었다. 홍대용은 왜 그 말을 했을까? 화이관(華夷觀) 때문이었다. 화이관이란 중국 한족을 중심이라 하고, 다른 민족은 모두 오랑캐로 보는 세계관을 말한다. 이 화이관적 세계관은 홍대용이 살았던 시대의 병폐였다. 당시 중국 청나라는 만주족이 세운 나라였다. 그래서 오랑캐의 나라라며 청나라와 접촉을 꺼렸다. 그런 태도는 조선의 발전에 저해가 있었다. 홍대용은 지전설을 활용한 발상의 전환을 통해 화이론을 극복하고자 했다.

지전설에 따르면 우주에는 중심이 없다. 지구조차 수많은 행성의 하나일 뿐이다. 인간 사회 역시 마찬가지다. 중국이 중심일 수는 없다. 화이관의 발단이 된 〈춘추〉에 대해 홍대용은 “공자는 주나라 사람이다. 〈춘추〉는 주나라의 역사서다. 공자가 바다 건너 오랑캐들이 있는 곳에 거주했다면 ‘주나라 바깥의 춘추’가 생겨났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안과 밖의 차이일 뿐이라는 얘기다. 공자는 주나라 사람이기 때문

에 주나라 중심의 역사서를 썼다. 공자가 주나라 바깥 나라의 사람이었다면 그 나라 중심의 역사서를 썼을 것이다. 따라서 중국이 중심이라는 화이관은 버려야 한다.

칸트와 홍대용은 자기 시대의 발전을 저해하는 시대적 문제에 맞서 해결책을 찾고자 했다. 그것이 철학자가 하는 일이다. 철학자들은 자신들이 찾은 해결책을 널리 알리기 위해 글을 썼다. 세월이 흘러 그것이 고전이 되었다. 철학은 삶 속에 있다. 시대적 문제라 해서 멀리 있지 않다. 시대적 문제란 다수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문제일 뿐이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삶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정의가 그렇고, 평화가 그렇고, 평등이 그렇다. 삶과 긴밀히 연관된 관심사가 시대적 문제가 되고, 그것들을 생각해보는 데서 철학은 시작된다.

칸트와 홍대용은 발상의 전환을 보여주었다. 그들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창의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을 것이다.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발상에서 새로운 것은 등장한다. 무술년 설날을 맞으며, 고정관념을 벗어난 발상의 전환을 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누구나 소망하는 보다 나은 삶을 위해. ㉠



홍승기 | 〈한국철학콘서트〉, 〈철학자의 조언〉 저자

설 연휴에도 쉬지 않습니다

비상시엔 병원·약국 129, 교통정보 1333

선수현 | 위클리공감 기자

설 연휴인 2월 15~17일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KTX를 이용하는 역귀성객은 요금의 최대 40%까지 할인된다.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해당 지역 8개 고속도로 요금소는 2월 25일까지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면은·평창·속사·진부·대관령·강릉·남강릉·북강릉 등 8개 IC를 통과하는 전국 상하 방면 IC가 해당된다. 전국 교통정보 안내는 1333, 고속도로 안내는 1588-2504, 철도 안내는 1544-7788을 이용하면 실시간으로 보다 편안한 귀성길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올림픽 관련 문의는 한국관광공사의 평창콜센터 1330을 기억하자.

설 연휴 동안에도 정부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044-205-1540~3)을 24시간 가동하며 각종 재난·사고 등에 대비한 관리체계를 유지한다. 구조와 응급환자 신고는 국번 없이 119다. 전국 주요 병원과 약국 역시 비상진료 체계에 들어간다. 연휴 동안 문을 여는 가까운 병원·약국은 보건복지콜센터 129를 이용하면 확인할 수 있다. 아이를 잃어버리면 당황하지 말고 182로 신고하자.

일기예보 안내 번호는 131이다. 고향 길 떠나며 추운 날씨에 장시간 집을 비울 때는 수도·전기·보일러 등이 안정적으로 가동될 수 있게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행여 수도가 고장 나면 서울·대전·광주·대구 등은 해당 지역번호와 121로, 부산·울산·인천 등은 지역번호와 함께 120으로 신고하면 된다. 전기 고장 신고는 전국 통합번호 123이다.

정부의 통합민원서비스 110은 연휴에도 쉬지 않는다. 24시간 전화·문자·채팅으로 상담 가능하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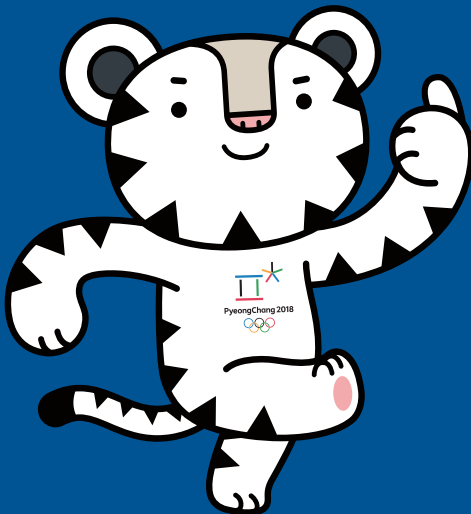


인증샷 찍고, 평창 동계올림픽 응원하자!

올림픽 경기를 보며 '엄지척!'
포즈 인증샷과 응원글을
남겨주시면, 멋진 사진을 뽑아
선물을 드립니다.



기간
2월8일(목)
~2월25일(일)



이벤트 참여 안내

참여방법

- 위클리공감 페이스북 이벤트 게시물에 응원 댓글을 남긴다.
- 경기 관람 장면을 엄지척 포즈와 함께 인증샷으로 찍어서 함께 응모하면 당첨확률 UP!

#평창동계올림픽화이팅 #응원댓글

이벤트 경품



1등(1명)

삼성 갤럭시 기어 스마트워치



2등(6명)

파나소닉 헤드폰



3등(20명)

맥도날드 시그니처버거 세트



4등(100명)

투썸플레이스 카페라테